

...내리비치

정기 총회 순서	2
6.15남북공동선언 전문	3
10.4선언 전문	4
6.15경기본부 창립선언문	7
6.15경기본부 규약	9
6.15경기본부 체계	14
안전 심의	16
①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17
② 2014년 사업평가서 심의의 건	9
③ 2014년 결산안 심의의 건	48
④ 임원 선출의 건	49
⑤ 2015년 사업계획서 심의의 건	50
⑥ 2015년 예산안 심의의 건	55
별첨 1. 2014년 홍보위원 칼럼 목록	56
별첨 2. 2014년 홍보위원 칼럼	57

2015년 정기총회 순서

■ 1 부

- 상임대표 인사말
- 내빈소개
- 6.15민족통일상 시상식

■ 2 부

- 개회선언
- 성원보고
- 서기 선출
- 안건 및 회순 통과
- 안건 심의
 - 안건 1 :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 안건 2 : 2014년 사업평가서 심의의 건
 - 안건 3 : 2014년 결산안 심의의 건
 - 안건 4 : 임원 선출의 건
 - 안건 5 : 2015년 사업계획서 심의의 건
 - 안건 6 : 2015년 예산안 심의의 건
- 서기록 발표
- 폐회 선언
- 기념촬영



6.15남북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대 중

김 정 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

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

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6.15경기본부 창립선언문

하루빨리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온 겨레의 뜨거운 열망 속에 지난 3월 4일 전민족적인 통일운동기구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6.15 공동위원회)>가 금강산에서 결성되었다.

<6.15 공동위원회>의 결성으로 우리 민족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경향각자·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 지향의 의지를 하나의 힘으로 모아낼 튼튼한 조직적 담보를 마련하였고,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앞당겨 그럴 수 있게 되었다.

<6.15 공동위원회>의 결성은 광복 60년, 6.15 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이하는 올해를 획기적이며 전환적인 통일국면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역사적인 전민족의 통일선언이다!

우리민족의 의지로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 전환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이하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결성을 선언한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외세에 의해 반세기 이상을 갈라져 고통 받았던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다시금 강토와 핏줄을 이어내고자 하는 1천만 경기도민의 절절한 통일 열망을 담아 결성되는 일상적인 통일실천 기구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활동의 원칙으로 삼고 이에 동의하는 경기도의 각계, 각층, 정당, 종교, 사회단체, 인사들이 총 망라되어 결성하는 상설적인 통일운동기구이며, <6.15 공동위원회>의 지역 조직체이다.

광복 60년이자 분단 60년의 지난 세월, 일제강점기 까지 포함하여 한 세기를 우리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해왔다.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과 불안 속에 살아야했고, 강대국에 의해 우리민족의 자주권은 유린당해왔으며 민족문화를 핏피우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자주권을 회복하기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해왔으며, 기어이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평양상봉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면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해 내 고야 말았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염원에 기초하여 탄생한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담보이며, 자주통일의 시간표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공존과 평화의 새시대가 열렸으며, 통일운동은 일부가 아닌 전민족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결성으로 민족의 힘으로 탄생시킨 6.15 남북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단결할 것이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는 분단의 고통이 가장 절절하게 스며있는 지역이다. 그 어떤 도시보다 분단의 장막을 길게 드리우고 있는 지역이며, 분단으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가장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는 곳이 또한 경기도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반도에서의 그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하며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강토와 자주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모든 외세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민족 통일만이 우리 조국의 완전한 평화의 정착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을 기념하고 1천만 경기도민들이 함께 하는 다양하고 대중적인 통일운동,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운동을 일상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며 이 모든 사업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6.15 공동위원회>의 지역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거족적이며 역사적인 통일대업에 경기도의 제 단체와 인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다.

같은 민족보다 더 큰 동맹은 없으며, 민족만큼 강한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하기에 민족이 갈라져서는 어떠한 번영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이 자주권을 유린하는 외세에 맞서 100년을 싸워온 자주성 드높은 자랑스러운 민족답게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로 총 망라되어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고 통일민족으로서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쳐나가자!

전민족이 함께 하는 반전평화공조, 통일에국공조에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가 가장 앞장서 나가자!!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 결성 만세!

6.15 남북공동선언 만세!

조국통일 만세!

2005년 4월 29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



6.15경기본부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약칭 6.15경기본부)라 한다.

제2조(목적) 6.15경기본부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조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격) 6.15 경기본부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경기지역의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제4조(사업) 6.15경기본부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 한다.

- 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적 실천을 전개한다.
- ② 한반도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전쟁을 반대한다.
- ③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상호 존중하는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 ④ 6.15경기본부는 6.15남측위원회 사업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한다.

제5조(운영원칙)

- ① 6.15 경기본부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연대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소재) 6.15경기본부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7조(구성)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경기지역의 제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

- ① 경기지역 단위의 제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은 시, 군 단위 본부를 회원으로 한다.

제8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①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표결할 권리

- ②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① 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 ② 사업과 활동에 참가할 의무와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할 의무
- ③ 재정(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제10조(탈퇴)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자유로이 그 의사를 표명한 후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1절 총회

제11조(구성) 최고의결단위로 상임대표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구장, 집행위원장, 참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상반기에 진행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표자 1/3이상 발의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나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 ③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 ④ 상임대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 ①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구장 선출에 관한 사항
- ③ 사업 계획 결정과 사업보고 승인에 대한 사항
- ④ 예산과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의

제14조(구성) 상임대표, 운영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구장, 집행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소집)

-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한다.
- ②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1/3이상 발의 또는 상임대표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 ③ 운영위원회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 ① 총회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와 수입사항 처리
- ② 가입, 탈퇴, 사고에 관한 사항
- ③ 의무금과 특별 분담금 책정에 관한 사항
- ④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사무처 집행부 인준에 관한 건

- ⑤ 특별위원회, 부설기구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⑥ 고문과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⑦ 예산의 조정과 전용
- ⑧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 ⑨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과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절 지부

제17조(지부의 설치 및 운영)

- ① 6.15경기본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부(시본부)를 둔다.
- ② 지부(시본부)의 위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내규로 둔다.

제4절 특별위원회

제18조(구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 및 선출)

-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6.15경기본부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5절 부설기구

제20조(부설기구의 설치) 6.15경기본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의 부설기구를 두며, 필요에 따라 법인을 둘 수 있다.

- ① 평화통일 의식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 ② 남북교류협력 사업
- ③ 평화통일 연구 사업
- ④ 그 외 6.15경기본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21조(부설기구장의 직무와 임기 및 선출)

- ① 부설기구의 장은 6.15경기본부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부설기구의 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2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 ①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한다.

제6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시군본부 집행책임자와 부문단체의 약간 명으로 한다.

② 부문단체의 약간 명은 부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24조(기능)

- ① 총회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 ② 총회와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 ③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집행
- ④ 필요시 확대집행위원회 소집, 확대집행위원회는 6.15경기본부 소속단체들의 집행책임자연석회의이다.

제7절 자문기구

제25조(구성) 각계 원로와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한다.

- ①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둔다.
- ② 각계 지도급 인사들로 지도위원을 둔다.

제 4 장 임 원

제26조(임원)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를 말한다.

제27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상임대표
 - 상임대표는 경기본부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회와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상임대표 궐위 시에는 그 대행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공동대표
 - 지역 본부장(시, 군)과 참가단체 대표로 한다.
- ③ 운영위원
 - 지역본부장(시, 군)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구장 그리고 가입단체 대표자 가운데서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감사
 - 2인으로 하고 사업과 재정 감사를 년1회로 하여, 매년 상반기 열리는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제2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사무 처

제29조 (사무처)

- ① 6.15경기본부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 ②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 간부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30조(재정)

- ① 6.15경기본부의 경비는 각종회비, 후원금, 기타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③ 고유목적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⑤ 재정운영을 위한 회계 관련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1조(예산, 결산 및 회계연도)

- ①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 ② 회계연도는 당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 7 장 회칙 개정 및 해산

제32조(회칙개정)

- ① 회칙개정은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 ② 회칙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제33조(해산)

- ① 6.15경기본부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할 수 있다.
- ② 해산에 관한 결의에서는 위임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34조(해산시 잔여재산 처분)

6.15경기본부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산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정(2005. 4. 29)	1차 개정(2006.3.16)
2차 개정(2007.3.27)	3차 개정(2009.1.22)
4차 개정(2011.2.2.)	5차 개정(2013.2.7)



6.15경기본부 체계

■ 고 문 (17명)

번호	이 름	번호	이 름
1	강성중(전 국회의원)	10	이원영 (전 국회의원)
2	문학진(전 국회의원)	11	이흥기(전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3	민경학(전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12	임병규(전 남양주향토사료관 관장)
4	박우석(전 6.15경기본부 감사)	13	장문하(경기민언련 전 상임대표)
5	백규현(여주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14	정진후(국회의원)
6	석달윤(통일 원로)	15	채수일(한신대 총장)
7	안민석(국회의원)	16	홍희덕(전 국회의원)
8	안재구(통일 원로)	17	효림스님(봉국사 스님)
9	이기우(전 국회의원)		

■ 지도위원 (20명)

번호	이 름	번호	이 름
1	고영인 (전 도의원)	11	윤화섭 (도의원)
2	김동균 (변호사)	12	이상성 (전 도의원)
3	김주삼 (전 도의원)	13	이재삼 (전 교육의원)
4	김현삼 (도의원)	14	이천환 (한사랑병원 원장)
5	김용한 (성공회대 교수)	15	임종성 (전 도의원)
6	박승원 (도의원)	16	정기열 (전 도의원)
7	송영주 (전 도의원)	17	조복록 (전 도의원)
8	수산스님 (대승원 주지스님)	18	최창의 (전 교육의원)
9	안혜영 (도의원)	19	최철환 (전 교육의원)
10	유미경 (전 도의원)	20	한옥자 (경기여성단체연합감사)

■ 감사 : 이주현(매원교회 목사), 조지훈(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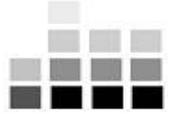
■ 상임대표 : 윤기석 목사 (수원교회 명예목사)

■ 공동대표 (30명)

번호	공동대표	번호	공동대표
1	6.15수원본부	16	전교조경기지부
2	6.15안산본부	17	전농경기도연맹
3	6.15안양본부	18	전국공무원노조경기본부
4	경기여성단체연합	19	전공노교육본부경기지부
5	경기여성연대	20	정의당경기도당
6	경기자주여성연대	21	평통사 경기남부지부
7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22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8	경기청년연대	23	천도교수원교구
9	경기환경운동연합	24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
10	기장경기노회통일위원회	25	한국노총경기본부
11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부	26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경기지회
12	민주노총경기도본부	27	홍사단경기도협의회
13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28	김상희(경기도의원)
14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29	양홍관(생명살림연구소 소장)
15	범민련경인연합	30	전환식(6.15사과원 대표)
사 고			
1	6.15고양본부	2	경기대련

■ 집행위원회 [10명]

번호	집행위원	번호	집행위원
1	6.15수원본부	7	정의당 경기도당
2	6.15안산본부	8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
3	6.15안양본부	9	평통사 경기남부지부
4	경기청년연대	10	집행위원장
5	민주노총경기본부	11	사무처장
6	전농경기도연맹		



안건 심의

[주문사항 : 안건과 회순을 심의해 주십시오.]

안건 1 :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안건 2 : 2014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안건 3 : 2014년 결산 심의의 건

안건 4 : 임원 선출의 건

안건 5 : 2015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안건 6 : 2015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안건 1.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주문사항 : 감사보고서를 심의해 주십시오.]

6.15경기본부 2014년 감사보고서

회계연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감사일시 : 2015년 1월 27일 오후 6시 30분

감사장소 : 6.15경기본부 사무실

감사자 : 이주현, 조지훈

피감사자 : 집행위원장 안영욱, 사무처장 박성철

1. 사업 감사

○ 지난해 우리는 수많은 어린학생들과 시민들을 허무하게 보낸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많이 아파하고 분노했습니다. 분단의 모순이 대한민국의 부정, 부패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수년간에 단절된 남북관계는 종북주의 논란, 서북청년단 재건, 백색테러 등 한국사회의 우경화와 남남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한해 사업을 돌아보면 ‘제2회 경기평화통일 골든벨’을 성과적으로 진행 했고, ‘찾아가는 통일교육’, ‘평화통일 강사 아카데미 심화과정’ 등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일본의 극우화 반대, 전쟁훈련반대 등 평화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과 단체방문, 연대사업, 사무처 운영 및 홍보위원회 활동 등 일상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한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 그리고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우리 모두의 단결된 힘으로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6.15경기본부 공동대표 여러분!

6.15경기본부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의 싹이 돌아오고 통일의 기대감이 생겨나게 합시다.

2. 재정 감사

[재출 서류]

1. 2014년 수입, 지출 결산안
2. 2014년 각 월별 수입, 지출 결산안
3. 각 월별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철
4. 통장 사본

- 회계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과 증빙서류는 잘 갖춰졌습니다. 수입, 지출내역을 감사한 결과 회계수치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이 정당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어려운 조건에서도 다양한 공모사업과 후원회원 확대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좋았습니다. 기부금단체로 등록 된 것은 후원회원 모집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6.15경기본부의 사업계획과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6.15경기본부 공동대표님들 모두가 후원회원이 되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회비 납부율은 예산안 대비 69%로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습니다. 전체 금액 면에서는 적은 편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회비 미납단체가 있습니다. 회비미납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화하여 회비 납부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6.15경기본부 전체 성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 이 주 현 

감사 : 조 지 훈 



안건 2. 2014년 사업평가서 심의의 건

[주문사항 : 6.15경기본부의 2014년 사업 평가서를 심의해주십시오.]

6.15경기본부 2014년 사업일지

▣ 각 영역별 사업 활동 현황

월별	조직사업		대중사업, 정세대응사업		연대사업	
	13년	14년	13년	14년	13년	14년
1월	10	11	1	2	0	4
2월	10	23	0	11	7	7
3월	15	11	8	13	3	12
4월	13	13	11	19	3	16
5월	7	7	7	10	0	5
6월	10	9	6	9	0	2
7월	4	5	14	15	1	2
8월	3	11	8	17	0	1
9월	7	9	2	9	0	1
10월	6	7	1	10	0	1
11월	10	7	1	6	3	7
12월	16	8		1	1	3
합계	111	121	59	122	20	61
증감	9.0%		106.7%		205.0%	

○ 조직사업, 대중사업, 정세대응 사업, 연대사업이 전년 대비 활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대중사업과 정세 대응 사업은 크게 활동력이 높아졌다.

■ 조직사업 (126 회)

◇ 1월 (11회)

- 1월 7일 1차 집행부 회의
- 1월 13일 2차 집행부 회의
- 1월 14일 2014년 1차 워크숍
- 1월 20일 3차 집행부 회의
- 1월 22일 수원 자원봉사센터 전산 교육
전교조경기지부장과의 면담
- 1월 23일 경기민언련 총회 참석
- 1월 24일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총회 참석
- 1월 27일 전국민주연합노조 방문
- 1월 27일 4차 집행부 회의
- 1월 28일 1차 운영위원회 회의

◇ 2월 (23회)

- 2월 3일 2014년 감사
5차 집행부 회의
- 2월 4일 전농경기도연맹 총회 참석
1차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회의
6.15남측위원회 2014년 1차 워크숍
- 2월 5일 경기여성연대 총회 참석
- 2월 6일 민주노총경기본부 본부장 면담
- 2월 7일 평택지역 평화통일통일사업 준비 주체 모임
- 2월 8일 전교조경기지부 2014년 1차 수련회 참석
- 2월 11일 2014년 정기 총회
6차 집행부 회의
- 2월 13일 최창의 의원 출판기념회 참석
- 2월 14일 6.15안양본부 사무처장과의 간담회 진행
“동네풍경” 대표와 면담
사무차장 신청자와의 면담
- 2월 16일 경기남부평통사 총회 참석
- 2월 17일 7차 집행부 회의
- 2월 18일 6.15수원본부 2014년 총회 참석
- 2월 20일 6.15남측위원회 총회 참석
2차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총회 참석
- 2월 24일 8차 집행부 회의
- 2월 25일 한국노총경기본부 대의원 대회 참여

◆ 3월 (11회)

- 3월 1일 전공노교육청본부 교육청경기지부 대의원 대회 참석
수원 위안부 할머니 상징인 평화비 건립 준비 토론회 참여
- 3월 3일 9차 집행부 회의
- 3월 4일 김상희 의원 출판기념회 참석
- 3월 10일 10차 집행부 회의
- 3월 11일 1차 집행위원회 회의
- 3월 17일 11차 집행부회의
- 3월 20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 3월 22일 경기청년연대 총회
- 3월 24일 12차 집행부 회의
- 3월 28일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 설명회 참석

◆ 4월 (13회)

- 4월 1일 13차 집행부 회의
- 4월 7일 14차 집행부 회의
- 4월 8일 전농경기도연맹 농경체험한마당 홍보 지원
- 4월 11일 4차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 회의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 4월 14일 15차 집행부 회의
- 4월 17일 2차 집행위원회 회의
전국공무원노조경기본부 대의원 대회 참석
- 4월 21일 16차 집행부 회의
평택지역 평화통일통일사업 준비 주체 모임
- 4월 25일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 면담
- 4월 28일 17차 집행부 회의
- 4월 29일 3차 운영위원회 회의

◆ 5월 (7회)

- 5월 1일 6.15사과원 지원(6.15경기, 수원 사무처)
- 5월 7일 6.15공동선언 발표 14주년 기념사업 기획회의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 면담
- 5월 9일 3차 집행위원회 회의
- 5월 12일 18차 집행부 회의
- 5월 19일 4차 운영위원회 회의
- 5월 20일 민주연합노조 운영위원 평화통일교육 참가

◆ 6월 (9회)

- 6월 1일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 행사 참여
- 6월 10일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참여
19차 집행부 회의
- 6월 17일 6.4지방선거 평가 회의

- 20차 집행부 회의
- 6월 19일 4차 집행위원회 회의
- 6월 23일 21차 집행부 회의
- 6월 27일 5차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 6월 30일 22차 집행부 회의

◆ 7월 (5회)

- 7월 7일 23차 집행부 회의
- 7월 15일 24차 집행부 회의
- 7월 17일 5차 집행위원회 회의
- 7월 22일 25차 집행부 회의
- 7월 26일 전농경기도연맹 일군 전진대회 참여

◆ 8월 (11회)

- 8월 5일 26차 집행부 회의
- 8월 7일 21일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문화제 준비 회의
- 8월 11일 27차 집행부 회의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기획단 회의
- 8월 12일 경기남부평통사 방문 및 다솜지역아동센터 평화통일교육 참관
- 8월 14일 인천AG 공동응원단 회의 참석
- 8월 18일 28차 집행부 회의
- 8월 21일 6차 집행위원회 회의
- 8월 23일 전교조경기지부 워크숍 참여
- 8월 26일 전농경기도연맹 운영위, 집행위 합동 회의 참여
29차 집행부 회의

◆ 9월 (9회)

- 9월 1일 30차 집행부 회의
- 9월 16일 6.15수원본부 통일인문학 아카데미 1강 참여
- 9월 23일 7차 집행위원회 회의
31차 집행부 회의
6.15수원본부 통일인문학 아카데미 2강 참여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 주관의 평화통일교육 참여
- 9월 29일 6차 운영위원회 회의
- 9월 30일 6.15수원본부 통일인문학 3강 참가
- 9월 30일 6.15안산본부 10.4선언 기념식 및 '60만번의 트라이' 공동체 상영 관람

◆ 10월 (7회)

- 10월 10일 32차 집행부 회의
- 10월 20일 8차 집행위원회 회의
- 10월 21일 33차 집행부 회의
- 10월 24일 6.15사과원 사과 수확 지원

- 10월 27일 34차 집행부 회의
- 10월 28일 안산평화의 집 후원카페 방문
- 10월 30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회의, 남측위 워크숍

◆ 11월 (7회)

- 11월 11일 35차 집행부 회의
- 11월 18일 36차 집행부 회의
- 11월 21일 9차 집행위원회 회의
- 11월 24일 8차 운영위원회 회의
- 11월 25일 37차 집행부 회의
경기남부평통사 평화강좌 참여
- 11월 29일 경기남부평통사 제2회 평화발자국 참석

◆ 12월 (8회)

- 12월 1일 38차 집행부 회의
광복 70년, 분단 70년 준비 1차 간담회
- 12월 5일 39차 집행부 회의
- 12월 11일 40차 집행부 회의
- 12월 11~12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 12월 23일 10차 집행위원회 회의
광복 70년, 분단 70년 준비 2차 간담회
- 12월 29일 9차 운영위원회 회의

■ 대중 사업 (122 회) -> 대중사업, 정세 대응 사업

◆ 1월 (2회)

- 1월 18일 문익환복사님 서거 20주기 추모제
평화통일 축구 선포식 참석

◆ 2월 (11회)

- 2월 8일 평화통일도보순례 준비를 위한 6.15인천본부 집행위원장 면담
- 2월 13일 남북해외의 일제 강제징용자의 공동대응을 위한 토론회 1차 준비 모임
- 2월 17일 박근혜 퇴진 기자회견 참여
- 2월 19일 평화수호 캠페인
민주노총 주최의 수원역 촛불문화제 참여
- 2월 20일 평화통일도보순례 준비를 위한 수도권 6자 모임

-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
- 2월 24일 키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촉구 캠페인
- 2월 2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
- 2월 26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규탄 캠페인
- 2월 28일 키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촉구 캠페인

◆ **3월 (13회)**

- 3월 3일 남북민간교류협의회 1차 논의
- 3월 5일 수원 촛불 캠페인 참가
- 3월 6일 6.15평택본부 준비모임
6.15안양본부 총회
- 3월 7일 6.15남양주본부 준비 모임
- 3월 10일 6.15안산본부 총회참석
- 3월 12일 한미일 군사동맹 시도 규탄 수원역 캠페인
수원역 수원촛불 참석
- 3월 13일 남북민간교류협의회 2차 논의
- 3월 19일 수원 촛불 캠페인 참여
- 3월 22일 경기 3.8여성대회 참석
- 3월 27일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 온 쌍용훈련 중단! 한미일군사공조 저지 기자회견
- 3월 28일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공동대응 토론회 준비회의

◆ **4월 (19회)**

- 4월 1일 6.15안양본부 오인동 박사 강연 참석
- 4월 4일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1차 준비 모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무처장 면담
- 4월 7일 오인동박사 남양주강연 참석
- 4월 9일 수원역 수원촛불 참석
- 4월 10일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무처장 면담
- 4월 12일 전농경기도연맹 농경체험한마당 부대행사 참여
- 4월 14일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공동대응 토론회 준비회의
신은미 강사 성남 강연
신은미 강사 안산 강연
- 4월 15일 신은미 강사 수원 강연
- 4월 16일 민주노총경기본부 수원역 촛불문화제 참석
- 4월 17일 오인동 박사, 신은미 강사 평가회의
- 4월 23일 시국 캠페인
- 4월 24일 생명평화경기기독교 행동 주최의 시국 기도회 참여
세월호 희생자 안산합동분향소 조문
- 4월 25일 오바마 대통령 방한 반대 기자회견 참석(용산 전쟁기념관)
오바마 대통령 방한 저지 실천(광화문 일대)
- 4월 29일 세월호 관련 경기 간담회 참여

◇ 5월 (10회)

- 5월 7일 6.15공동선언 발표 14주년 기념사업 준비 회의
수원역 수원축볼 7주년 문화제 참석
- 5월 8일 경기진보연대 집행위회의 참관
- 5월 9일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 대통령 면담요청 청운동 농성 참석
세월호 서울축볼 참석
- 5월 10일 세월호 안산집중축볼 및 행진 참석
- 5월 14일 세월호 관련 경기 간담회 참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관
- 5월 16일 휴먼라이브러리 회의 참여
- 5월 17일 세월호 서울집중축볼(시청광장) 및 행진 참석

◇ 6월 (9회)

- 6월 9일 남북민간교류협의회와 북중러접경지역 기획 회의
- 6월 12일 AOK 정연진 대표 면담
6.15공동선언 발표 기념 강좌
- 6월 15일 6.15선언 발표 14주년 기념대회(독립공원) 및 행진 참석
- 6월 20일 일본 집단자위권 규탄, 한미일군사공조 반대 화서역 출근선전전
- 6월 25일 일본 집단자위권 규탄, 한미일군사공조 반대 수원역 퇴근선전전
수원역 세월호 축볼문화제 참석
- 6월 26일 세월호 수원역 시민분향소 담당
민주노총경기본부 수원역 집중축볼 참석

◇ 7월 (15회)

- 7월 2일 일본 집단적 자위권 반대 수원역 캠페인
- 7월 3일 세월호 수원 분향소 참여
- 7월 3일 골든벨 행사장 답사(영생고)
- 7월 4일 일본집단적 자위권 반대 성대역 출근 선전전
- 7월 7일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기획단 회의
- 7월 7일 쌍용자동차 평택역 농성장 (야간농성)
- 7월 10일 세월호 가족 대책위와 같이 수원 축볼 진행
- 7월 11일 일본 집단적 자위권 반대 수원역 캠페인
- 7월 16일 일본 집단적 자위권 반대 수원역 캠페인
- 7월 17일 2014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 7월 19일~20일 2014 청소년 평화통일 국토 순례
- 7월 21일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기획단 회의
- 7월 27일 일본 군사적 재무장 반대 집회 참여
- 7월 30일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응원단 준비 회의 참석
- 7월 31일 경기생명평화기독행동 세월호 특별법제정 릴레이단식 기자회견 참석

◆ 8월 (17회)

- 8월 6일 세월호 특별법제정 축구 수원촛불 참석
- 8월 8일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인터뷰(뉴스피크)
- 8월 7일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조직 - 전국회의 경기지부 운영위 방문
- 8월 9일 6.15수원본부의 20회 수원시민 통일한마당 참가 및 부스 운영
- 8월 12일 세월호 특별법제정 축구 캠페인(수원역-집중 서명전)
- 8월 13일 세월호 특별법제정 축구 캠페인(수원역-집중 서명전)
- 8월 14일 세월호 특별법제정 축구 시국기도회 참석
세월호 특별법제정 축구 수원분향소 정리 행사 참석(분향소 정리)
- 8월 15일 6.15남측위원회 주최의 8.15대회 참석
세월호 특별법제정 축구 범국민대회 참석
- 8월 18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단 축구 기자회견 참석
쌍차 평택 천막농성장 농성(야간)
- 8월 19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단 축구 캠페인(수원역)
- 8월 20일 인천AG 성화봉송 수원 캠페인(공동응원단, UFG)
세월호 특별법제정 축구 캠페인 및 수원촛불참석
- 8월 21일 인본 재무장 반대 캠페인
- 8월 22~23일 제7회 전국 통일교육 수련회

◆ 9월 (9회)

- 9월 1일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대학 홍보
- 9월 3일 안산 중앙역 세월호 촛불 참석
- 9월 4일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대학 홍보
안산 통일포럼 이사회에서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홍보
- 9월 11일 싸드 평택배치 반대 긴급기자회견
- 9월 18일 안산 통일포럼 19기 평화통일지도자 과정에서 골든벨 홍보
- 9월 26일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사회자 미팅
- 9월 27일 2014 농민대회 참여
- 9월 28일 2014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북한:인도네시아) 응원 참여

◆ 10월 (10회)

- 10월 3일 6.15남측위 10.4선언 발표 7주년 기념식 참석
- 10월 9일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 10월 12일 안산 고려인이주 150주년 기념행사 참석
- 10월 23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 축구 기자회견
- 10월 23일 46차 함미연례안보협의회에 즈음한 기자회견
- 10월 26일 전농경기도연맹 주최의 통일쌀 경작지 추수 행사
- 10월 28일 SCM규탄 기자회견 참여
6.15수원본부 평화통일강좌 6강 참여
- 10월 29일 수원역 세월호 캠페인 참여
- 10월 30일 '60만번의 트라이' 상영

◆ 11월 (6회)

- 11월 6일 F-35 예산 삭감 요구 정미경 국회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 11월 11일 평통사 2014년 청년아카데미 1강 참여
- 11월 18일 평통사 2014년 청년아카데미 2강 참여
- 11월 24일 시국선언 기자회견
- 11월 25일 평통사 2014년 청년아카데미 3강 참여
- 11월 29일 평화발자국 참여

◆ 12월 (1회)

- 12월 23일 한미일 군사정부양해각서 체결저지 국방부 앞 농성

■ 연대 사업 (61 회)

◆ 1월 (4회)

- 1월 8일 경기교육희망연대 1차 대표자회의
- 1월 11~12일 한국진보연대 통일일꾼 수련회
- 1월 21일 경기진보연대 집행위 참관
- 1월 28일 경기진보연대 집행부와 간담회

◆ 2월 (7회)

- 2월 5일 경기교육희망연대 2차 대표자 회의
- 2월 12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회의 참석
- 2월 13일 “박근혜 퇴진! 경기지역 공동투쟁을 위한” 경기지역 체단체 간담회 참석
- 2월 17일 김상곤교육감 북콘서트 참여
통일나눔 총회 참석
- 2월 18일 수원생활정치발전소 창립토론회 참석
- 2월 24일 경기진보연대 집행위 회의 참관

◆ 3월 (12회)

- 3월 4일 2014년 행복한 경기교육 희망연대 전체회의 참석
- 3월 6일 2014년 행복한 경기교육 희망연대 기자회견 참석
- 3월 10일 2014년 행복한 경기교육 희망연대 대표자 회의 참석
- 3월 11일 3월 통일정세 강연 후원으로 참여
- 3월 12일 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회 회의 참관
경기교육희망연대 회의 3차 대표자 회의
- 3월 14일 수원시민신문 창립 9주년 기념식 참석

- 3월 19일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 참석
- 3월 26일 2014년 행복한 경기교육 희망연대 기자회견 참석
2014년 행복한 경기교육 희망연대 대표자 회의 참석
- 3월 27일 수원영상미디어센터 개관식
경기진보연대 집행위 참관

◆ 4월 (16회)

- 4월 3일 2014년 행복한 경기교육 희망연대 대표자회의 참석
- 4월 8일 전농경기도연맹 ‘농경체험한마당’ 홍보 지원
기지촌여성 경기도지원조례제정을 위한 후원주점
- 4월 9일 2014년 행복한 경기교육 희망연대 대표자회의 참석
경기공투본 간담회 참관
- 4월 12일 전농경기도연맹 ‘농경체험한마당’ 자봉단 및 평화통일부스 운영
- 4월 15일 김상곤 경기도지사후보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석
장정희 수원시의원후보 선본사무실 방문
- 4월 16일 2014년 행복한 경기교육 희망연대 대표자회의 참석
경기도교육감 민주개혁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취소)
경기공투본 회의 참관
- 4월 21일 평택역 쌍용차 농성천막 결함(20시 ~ 22일 09시-경기남부평통사)
- 4월 22일 경기진보연대 집행위 참관
- 4월 23일 2014년 행복한 경기교육 희망연대 대표자회의 참석
- 4월 28일 2014년 행복한 경기교육 희망연대 후보등록 기자회견 참석
- 4월 29일 세월호 참사 경기 간담회 참석

◆ 5월 (5회)

- 5월 8일 경기진보연대 집행위 참석
- 5월 14일 이재정 경기교육감후보 선본 방문
- 5월 16일 2014년 행복한 경기교육 희망연대 대표자회의 참석
- 5월 17일 이재정 경기교육감후보 선본 자원봉사(~6월 3일)
- 5월 20일 이재정 경기교육감후보 선본사무실 개소식 자원봉사

◆ 6월 (2회)

- 6월 18일 경기진보연대 집행위 참석
- 6월 26일 박근혜 퇴진 공동 투쟁 경기본부 참관

◆ 7월 (2회)

- 7월 1일 경기진보연대 집행위 참석
- 7월 2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석

◆ 8월 (1회)

- 8월 1일 경기진보연대 집행위 참석

◆ **9월 (1회)**

- 9월 17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

◆ **10월 (1회)**

- 10월 2일 경기진보연대 집행위 회의 참여

◆ **11월 (7회)**

- 11월 11일 경기진보연대 집행위 회의 참여
- 11월 14일 전농 쌀수입 전면 개방 저지 대장정 경기도의회 기자회견 및 캠페인 참석
- 11월 15일 전농 쌀수입 전면 개정 저지 대장정 평택역 캠페인 참여
쌍차 2000일 집회 참석
- 11월 18일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농성장 지지방문
- 11월 20일 전국농민대회 참석
- 11월 27일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농성장 지지방문

◆ **12월 (3회)**

- 12월 1일 경기진보연대 집행위 회의 참여
- 12월 19일 쌍차 굴뚝투쟁 문화제 참가
- 12월 22일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농성장 지지방문

2014년 사업 평가

I. 2014년 사업 방향(총회 결정사항)

- ① 민주주의 수호와 반전평화,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② 소속단체와의 결속력을 높이고 주변 통일 애국역량을 모으기 위해 노력한다.
- ③ 평화통일교육의 질적 향상과 자립적 활동공간을 마련한다.

II. 2014년 사업 총평

2014년은 정부의 중북몰이와 남북 대결 등 어려운 객관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6.15경기본부의 조직의 확대, 강화사업, 규모 있는 대중사업, 안정적인 조직 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6.15경기본부는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보다 한발이라도 더 전진하기 위해 정세대응 활동 강화, 소속단체와의 관계 강화, 경기지역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사업을 전문화시키는 등 2014년 많은 노력을 하였다.

연초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반대, MD반대 등 정세 대응 활동은 13년 대비 106.7%(59회->122회) 강화되었으며 경기지역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 활동은 13년 대비 205%(20->61회)나 증가하였다. 2014년 2회를 맞는 경기평화통일골든벨은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팀이 참가했다. 특히 단체에서 집단공부를 하고 대학생들과 대안학교 청소년의 많은 참가는 고무적이었다. 늘어나는 사업과 활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 회의 같은 주요 단위 회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집행부가 충원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담보할 재정의 확충도 필요하다.

■ 조직사업 평가

- 연초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반대, MD반대 등 정세 대응 활동은 13년 대비 106.7%(59회->122회) 강화되었으며 경기지역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 강화 활동은 13년 대비 205%(20->61회)나 증가하였다.

- 소속단체에 대한 방문사업은 연초에는 왕성하게 진행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잘 진행되지 않았다. 방문사업은 소속단체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전농경기도연맹과 경기남부평통사, 6.15수원본부, 전교조경기지부 통일위원회 등 개별 단체와 함께 하는 공동사업을 더 확대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늘어나는 사업과 활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충원이 필요하다.

- 운영위원회의가 안정적이고 출석률이 높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 대중사업, 정책사업 평가

- 6.4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당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경기도민과 청소년들의 평화통일 상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이 성과 있게 진행되었다.
- 골든벨 행사가 경기지역의 주요한 통일 대중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하며 이외에도 많은 대중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대중행사가 필요하다.
- 토론회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대성한다는 의미가 크지만 참가자를 늘리는 문제가 남아 있다.

■ 교육사업 평가

- 도비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통일교육’과 ‘강사아카데미 심화과정’ 사업은 안정적 재정으로 교육사업을 잘 진행하였다. 특히 평택, 성남, 연천, 의정부, 안양 등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 더 많은 지역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과제는 남아 있다.

■ 재정사업 평가

- 예년에 비해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줄고, 후원이 줄어서 14년 처음으로 차입금을 쓰기도 했다.
-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어 후원회원을 모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늘어나는 업무와 활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충원이 필요하나 현실은 재정이 받쳐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후원회원이 늘어나야 하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연대사업 평가

- 여러 연대기구에 참관함으로써 타 단체와의 교류, 협력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경기진보연대 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복한경기교육희망연대, 박근혜퇴진경기공동투쟁본부 등에 참관 단체로 참여)
- 6.15경기본부가 전국적인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Ⅲ. 영역별 사업 내용

1. 6.15 공동선언, 10.4선언 대중화 사업

1) 대중사업

① 6.15 공동선언 발표 14주년 기념사업

◆ **계 획**

- 6.15수원본부의 6.15기념행사와 연계해서 6.15 기념사업을 한다.
- 6.15기념식과 토크콘서트 같은 대중행사를 결합하여 대중적 행사가 되도록 한다.
- 각 시군 지역과 단체에서 6.15관련 행사(사진전, 해외 순회 강연회, 캠페인 등)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결 과**

- 6.15공동선언 발표 14주년 기념 강연회 진행
 - 6월 14일 6.15경기본부와 통일나눔 공동 주최, 강사 : 정연진(AOK대표), 약 35여명 참가
 - 6.15 기념사업을 대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재정과 참여 인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음)
- 6.4지방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경기진보연대와 공동 기획단을 구성하여 6.15기념행사를 준비하려 했으나 세월호 참변과 6.4지방선거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
- 대중행사, 각 지역 지원 사업은 진행되지 않음

◆ **평 가**

- 세월호 참변과 6.4지방선거 등 여러 어려움으로 6.15공동선언 발표 14주년 기념사업이 소규모의 기념강연회로 진행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다.
- 작년과는 다르게 6.15공동선언 주간 설정과 캠페인 진행, 타 단체와 함께 하려 했던 사업 방향 전환의 의미는 크다.

② 10.4선언 7주년 기념식 및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 **계 획**

- 일시 : 2014년 10월 9일 목요일 14시
- 장소 : 수원영생고등학교 체육관
- 참가대상 : 누구나
- 참가비 : 2만원(2인 1조)
- 참가규모 : 150팀
- 주최 : 6.15경기본부
- 주관 : 경기평화교육센터
- 대학생,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조직에 신경을 쓰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순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 골든벨 행사와 10.4선언 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 **결 과**

1) 1부 행사로 '10선언 발표 7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1) 2회 골든벨 참가자

: 106팀(212명) 청소년 32명, 대학생 28명(14팀), 일반 46명(23팀), 조직 106명(53팀)

[제2회 경기평화통일 골든벨 참가현황 표]

번호	이름	내역	1회 참가	2회 참가	비고
1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5	5	6.15안산본부
2	안산 통일포럼	윤기종 외	5	3	
3	안산 커피공방	노세극 외	3	1	
4	6.15수원본부				개별단체참가
5	수원여성회		7	9	
6	역사와 진실		2	0	
7	경기여성연대		1	0	
8	6.15안양본부		5	0	
9	안양 대안과나눔		2	1	
10	경기남부평통사		3	2.5	
11	경기청년연대		1	5	
12	경기민권연대		2	1	
13	전농경기도연맹		6	4.5	
14	범민련경인연합	통일아침 포함	5	2	
15	6.15고양본부		0	0	
16	동서남북포럼		1	0	
17	부천평통사(장혜영)		4	1	
18	민주연합		0	3	
19	용인진보연대			4	
20	일반 신청자		20	37	
21	교육위원		1	8	
22	현장접수		6	13	
23	통일맞이			1	
24	공무원노조경기			1	
25	별찌			2	
합 계			80	106	

3) 행사진행

시 간	내 용	담 당	비 고
13:00~14:00	접수	접수대	- 3곳 접수
13:40~13:50	장내 정리	사회자	- 공지: 전체공지
13:50~14:00	사전마당 -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사회자 : 동네풍경 김태현 문제출제: 동네풍경 윤나라	- 2문제 - 상품권 30장
14:00~14:10	축하공연	휘파람	- 2~3곡
10.4선언발표 7주년 기념식			
14:10~14:15	인사말	윤기석 상임대표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14:15~14:20	축 사	이재정 경기 교육감	
14:20~14:25	축 사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	
14:25~14:30	내빈소개	사회자	
14:30~14:35	성명서 낭독	이종철 6.15수원본부 대표	-성명서, 상장케이스

제2회 경기평화통일 골든벨			
시 간	내 용	담 당	비 고
14:35~14:40	개회선언 및 안내	사회자 : 동네풍경 김태현 문제출제: 동네풍경 윤나라	-공지:전체행사운영, 시상, 경품 등
14:40~14:45	대회사	황인성대표 - 경기평화교육센터 대표	
14:45~14:50	환영사	방태진 영생고등학교 교장	
14:50~16:50	골든벨 진행 (120분)	- 진행 : 김태현 - 문제출제 : 윤나라 (노트북담당 : 조근향)	-특별문제(농업) 2문제: 햇쌀10kg2개 -15번문제전 패자부활전
16:50~17:10	시상 및 경품추첨	- 최연소, 최고령 : 신동선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 응원상 : 윤기중 안산통일포럼 대표 - 3등 10.4선언상 : 이천환 6.15경기본부 지도위원 - 2등 6.15공동선언상 : 황인성 경기평화교육센터 대표 - 1등 평화통일골든벨 : 윤기석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 경품추첨 고문, 지도위원, 공동대표 - 응원상 : 수원여성회	- 최연소 : 76번 김준석 - 최고령상 : 32번 총충빈 - 3등 0.4선언상 : 163번 이상선 - 2등 6.15공동선언상 45번 박정선 - 1등 경기평화 통일골든벨상 77번 이태형 - 경품추첨
17:10~	행사장 정리	마무리 및 청소	전체 자부단

4) 장학위원

- 결과 : 수석장학위원(8명 1,500,000원) / 장학위원(49명 4,700,000원)

번호	직책	이름	소속/직책	1회	2회	비고
1	수석 장학 위원	박길용	6.15 안양본부 상임대표	30	30	
2		정진후	국회의원	30	30	
3		윤기중	안산 통일포럼	30	30	
4		채수일	한신대 총장		30	
5		김익영	통합진보당경기도당위원장 직무대행		30	
6		신동선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50만원 후원
7		전환식	6.15사과원 대표			사과 300개 후원
8		이천환	한사랑병원 원장			310만원 후원
		합 계		90	150	
1	장학	민경학	전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10	10	

2	위원	수산스님	대승원 주지	10	10	
3		이종철	6.15수원본부 상임대표	10	10	
4		임득선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10	10	
5		현지환	경기청년연대 의장	3	5	
6		이상언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본부장		10	
7		김주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지부장		10	
8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10	10	
9		허원	한국노총경기도본부 의장			
10		류연복	민족예술인총연합회경기지회 지회장	10	10	
11		송성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10	10	
12		유영남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10	10	
13		이훈삼	기장경기노회통일위원회 위원장		10	
14		이호현	민족문제연구소수원지부 지부장	10	10	
15		정석인	범민련경인연합 비대위원장	10	10	
16		장창원	경기남부 평통사 공동대표	10	10	
17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10	
18		김진향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10	
19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10	
20		백승현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		10	
21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10	
22		이기호	한신대 평화공공성센터 소장		10	
23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0	
24		임형진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10	
25		한홍구	성공회대교수		10	
26		황인성	경기평화교육센터 대표		10	
27		김준혁	경기평화교육센터 운영위원		10	
28		노세극	경기평화교육센터 운영위원	10	10	
29		류명화	경기평화교육센터 운영위원	10	10	
30		양훈도	경기평화교육센터 운영위원	10	10	
31		이달호	경기평화교육센터 운영위원	10	10	
32		이상선	경기평화교육센터 운영위원		10	
33		이주현	경기평화교육센터 운영위원		10	
34		장정희	경기평화교육센터 운영위원		10	
35		최창의	경기평화교육센터 운영위원		10	
36		김승일	경기대학교 민주동문회	10	10	
37		이상선	한신대학교 민주동문회	10	10	
38		이석현	국회의원		10	
39		김현미	국회의원		10	
40		임수경	국회의원		10	
41		김미희	국회의원		10	
42		부좌현	국회의원		10	
43		유인호	통일포럼 전 대표		5	
44		조성찬	안산통일포럼 총동문회 회장		10	

45		조재학	안산통일포럼 이사	10	10	
46		김진윤	수원광장 대표	10	10	
47		김동균	통일나눔 대표		10	
48		양길승	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10	
49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		10	
합 계				228	470	

5) 후원

① 목표/점검 : 5,000,000원

② 결과 : 4,900,000원

제2회경기평화통일골든벨 후원				
번호	단체	1회	2회	비고
1	한사랑병원	300	310	10만원 추가 후원
2	민주연합노조	30	20	
3	한국노총경기도본부	50	50	
4	전농경기도연맹	50	60	
5	노무현 재단		50	
합 계		430	490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협찬				
번호	단체	1회	2회	내용
1	6.15사과원		사과 300개 / 5상자	사과 250개 / 5상자
2	전유원		블루베리 액기스 6통	페트병
3	고병국		포도 4kg	5상자
4	한도숙		배즙	8박스
5	경기도연맹		말벌꿀	2개
6			치약비누세트	3개
7			쌀 10kg	10포대
8	수원시민신문			신문광고
9	경기남부평통사		물티슈	물티슈 300개
10	영생고등학교			체육관 및 시설이용

5) 재정

수입			지출		
참가비	98팀	1,960,000	상품 및 경품	시상품 등	4,496,230
수석장학위원	8명(4명)	1,200,000	홍보비	포스터, 전단지 등	1,160,000
장학위원	52명	4,700,000	업무추진비	교통비, 식비 등	3,257,570
후원금		4,900,000	행사진행비	렌탈, 음향 등	3,387,000
보조금		1,800,000	인건비	사회자, 공연 등	800,000
			기타	세금, 수수료 등	642,580
합 계		14,560,000	합 계		13,743,380
잔 액					816,620

◆ 평 가

- 기획안은 4월부터 준비했으나 세월호참사, 지방선거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실제적 준비는 7월부터 진행되었다.
- 사무처 구성원 수가 적었고 실무 상근자도 채용하지 못했지만, 지난 행사경험과 수시점검으로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었다.
- 조직위원장과 조직위원회를 신설해 경기지역 평화통일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준비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후원과 (수석)장학위원 조직에 국한되었다.
- 후원과 (수석)장학위원은 각계각층에 많이 함께해줘 대회운영에 큰 힘이 되었다.
- 단체와 지역이 광범위하게 참가하는 행사를 만들지 못했다. 행사의 의의를 공유하여 단체 또는 지역별로 준비하여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수원여성회의 참가자 모집과 응원준비, 용인지역의 참가조직, 경기청년연대 참가조직은 좋은 성과이다. 함께 공부모임을 만들고 참가자를 조직하고 응원도 준비해 단체, 지역이 함께하는 골든벨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전년에 비해 일반참가자도 늘고, 대학생, 청소년들의 참가율도 많이 올라갔다. 수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통일맞이, 별찌 등 행사취지에 공감하며 참여하는 단체가 추가된 것도 큰 성과이다.
- 방청객을 비롯한 응원 온 사람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는 문제, 선물증정은 좋았다. 진행자, 참가자, 방청객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계속 노력해야 한다.
- 상금이 큰 만큼 행사를 공정하게 하려 노력했다. 약간의 소란이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준비한 기획(시간, 진행 등)되로 잘 진행되었다.
- 골든벨 문제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여 점차적인 탈락이 아니라 무더기 탈락자가 발생하였다.
- 예상문제에서의 출제율을 높인 것과 통일상식 문제를 9,10월 통일뉴스, 연합뉴스 기사로 한정 한 것이 참가자들에게 막연함을 덜어 주고 도움을 주었다.
- 일반인에게 통일에 대한 기초 상식을 접하게 하고, 관심 있던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대회취지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 골든벨 사업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기는 힘들지만 도민과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상식을 높인다는 좋은 취지도 있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좀 더 많은 대중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대중 사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행정적, 재정적 측면을 면밀히 살펴면서 추진해야 한다.
- 장소를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허비해서 대학생 대상의 홍보시기가 많이 늦어졌다.

③ 정세 대응 실천 사업 강화

◆ 계 획

- 민주주의 수호, 전쟁반대, 평화실현 등 각종 투쟁을 소속단체, 경기지역 제 단체와 잘 협력하여 진행한다. (1인 시위, 촛불 결합, 기자회견 등)
-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응원단 참여 등 계기별 사업을 진행한다.

◆ 결 과 와 평 가

- 선전전, 캠페인 같은 실천투쟁과 정세 대응 투쟁(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캠페인 등)이 예년에 비해 많이 활발해졌다.
-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공동응원을 진행했다.
- 한미합동군사훈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F-35, 미군기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대북 전단살포

등에 대해 기자회견,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 정세관련 사안들에 대해 지역 내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여론전과 공중전을 적절히 배치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④ 2014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 계 획

- 경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토론회는 평화와 안보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주제로 3월 25일(화) 오후 2시에 진행한다.

◆ 결 과 안 평 가

○ 경기도 보조금(230만원)으로 1회 진행한다.

- 주제 :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과제

- 일시 : 2014년 7월 17일(목) 19시

- 장소 : 수원의회 21

- 패널 구성 :

: 사회자 : 양훈도

: 발제자 : 최은아(6.15남측위원회 공동사무처장), 임형진(경희대교수)

: 토론자 : 박승원(도의원), 김대봉(대안과 나눔 집행위원장)

윤기중(안산통일포럼 대표)

한상진(경기남부평통사 사무처장)

○ 매년 토론회마다 좋은 의견들과 방법들이 제출되고 있으나, 참가조직과 대중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로는 부족함이 많다. 토론회의 실질적 권위와 정책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⑤ 북, 해외 교류협력 사업 모색

◆ 계 획

○ 6.15남측위 지역본부 이름으로 <남북해외의 일제강제징용자의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해외 토론회>를 준비한다.

○ 6.15경기본부와 북이 교류협력 할 수 있는 독자적 사업을 모색한다.

○ 해외동포와의 교류도 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분위기 고조를 위해 <2014 6.15해외측 인사 초청 강연회>를 추진한다.

◆ 결 과

○ 2014 6.15해외측인사 초청 강연회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두 명의 해외동포 강사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한다.

- 강사 : 오인동(6.15미주위원회 공동대표, '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 저자)

신은미('재미동포 아줌마 북한 가다' 저자)

- 강사비 : 15만원

- 신청 대상 :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각 시군본부, 부문단체, 기타 등

- 접수 방법 : 강연회 신청서를 6.15경기본부로 제출

- 주최 :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강의 제목	강사	강의시간	강의수업(6.15경기)
내가 본 북한은	신은미	90분	18회(4회)
밖에서 바라본 통일의 꿈 연방연합방	오인동	90분	14회(4회)

○ 일제강제징용자의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해외 토론회는 북과의 실무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현재 연기된 상황이다.

○ 남측위 차원과 지역본부 차원에서 북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무산 되었다. 하지만 사업이 유의미하고 계속 모색해야 한다.

오인동 박사 경기지역 강연 일정					
번호	날짜	시간	단체	지역	대상
1	4월 1일(화)	19시	6.15안양본부	안양	성인
2	4월 3일(목)	10시	안성농민회	안성	농민
3	4월 3일(목)	18시 30분	여주농민회	여주	여주시민
4	4월 7일(월)	19시 30분	6.15경기본부	남양주	성인

신은미 강사 경기지역 강연					
번호	날짜	시간	단체	지역	대상
1	4월 14일(월)	14시	성남평화연대	성남	성인
2	4월 14일(월)	19시	6.15안산본부	안산	성인
3	4월 15일(화)	15시	한신대 평공센터	오산	대학생
4	4월 15일(화)	19시 30분	6.15수원본부	수원	성인

◆ 평가

○ 2014 6.15해외측 인사 초청 강연회는 일반 대중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준다는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었다.

- 해외동포와 남한 사람과의 교류협력의 계기가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 분위기 고조에 역할을 하였다. 또한 대중행사에 대한 고민이 많은 지역에서 잘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해외동포의 통일오작교 역할을 더 높이기 위해 회수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⑥ 6.4지방자치선거 대응 사업

◆ 계획

- 평화통일 지지 후보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한다.
- 평화통일 지지 후보를 선정하여 지지, 지원한다.

◆ **결 과 와 평 가**

- 6.15경기본부가 평화통일 지지 후보를 선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평화통일 지지 후보를 선정하지 않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선거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6.15경기본부의 참여 폭이 좁아진다.
- 도지사, 교육감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은 통합진보당만 왔으나 다음날 사퇴하였다.
- 경기도 진보교육감 단일후보를 위한 노력과 당선을 위해 노력 하였다(경기교육희망연대 참관, 투표 독려, 자원봉사 참여)
- 도지사 후보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⑦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 추수 행사**

◆ **계 획**

-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6월 초), 추수행사(11월 초)

◆ **결 과 와 평 가**

-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 행사(6월 1일), 통일쌀 경작지 추수한마당(10월 26일)에 참가하였다.
- 좀 더 많은 소속단체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015년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에 ‘통일쌀 농활’을 제출한다.

⑧ **대중 강연회**

◆ **계 획**

- 6.15수원본부, 통일나눔과 같이 매월 대중강연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결 과 와 평 가**

- 3월 정세 강연을 진행한 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 주제 : 이산가족 상봉 후 한반도의 정세는
 - 일시 : 2014년 3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 장소 : 수원 예당 문화원
 - 강사 : 임형진(경희대 교수,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 주최 : 통일나눔
 - 후원 : 6.15경기본부, 6.15수원본부
 - 참석 인원 : 25명
- 매월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계기를 살려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 ‘찾아가는 통일교육’ 사업을 통해 성남, 평택, 안양, 의정부, 연천 등에서 평화통일강좌를 진행했다.

2) **선전 여론 사업**

① **성명서, 기자회견**

◆ **계 획**

- 여러 현안에 대한 6.15경기본부의 입장(논평, 성명서)을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한다.

◆ **결 과**

○ 작년에 비해 성명서, 기자회견 횟수는 많이 늘었다.(3건→12건)

번호	성명서	날짜	비고
1	한반도 평화와 공존변영을 위한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2.11	정기총회
2	이산가족 상봉 환영! 키리졸브 훈련 반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기자회견	2.20	공동기자회견
3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쌍용훈련 중단! 한미일군사공조 저지 기자회견	3.27	공동기자회견
4	비상식적 인물로는 대한민국을 정상화 할 수 없다.	6.26	공동성명
5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을 환영하고, 남북관계개선을 촉구한다.	7.8	성명서
6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중단 촉구 경기지역 공동기자회견	7.21	공동기자회견
7	싸드(THAAD) 평택배치 반대 경기지역 기자회견	9.11	공동기자회견
8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	10.23	공동기자회견
9	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및 2+2회의에 즈음함 기자회견	10.23	공동기자회견
10	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결과 규탄 기자회견	10.28	공동기자회견
11	F-35 도입예산 삭감 기자회견 및 정미경의원 의견서 전달	11.6	공동기자회견
12	테러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배후를 밝히고 6.15남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공안탄압 중단하라.	12.15	공동성명

◆ **평 가**

-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 6.15경기본부의 입장을 내는 활동이 작년에 비해 많아졌다.
- 계기별, 사안별 사안에 대해 신속한 성명서, 논평, 기자회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성명서, 논평 등을 가입단체와 언론사, 후원회원 등에 배포했다. 이후 홈페이지를 활용해야한다.
- 기자회견, 캠페인 등 정세대응사업에서

② **홍보위원회 활동**

◆ **계 획**

- 경기민언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지역 대안언론에 평화통일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한다.
- 홍보위원 중에 여성 칼럼자를 추가한다.

◆ **결 과 와 평 가**

- 지역 언론사 10곳에 칼럼을 매주 보내고 있다.(수원시민신문, 신문고뉴스, 안양뉴스, 세종신문, 컬러인시흥, 부천타임즈, 성남투데이, 개벽신문, 뉴스피크, 뉴스Q)
 - 고문·지도위원, 공동대표, 운영위원, 집행위원, 후원회원, 교육위원, 홍보위원 메일발송

- 언론사를 더 확대하였으면 좋겠다.
- 9명의 홍보위원이 30편의(전년도 10명, 34편) 칼럼을 썼다.
 - 양훈도 홍보위원 개인적 사정으로 사퇴, 여성홍보위원 추가 안됨
 - 6.4지방선거 전후로 칼럼 신경 못씀(5월, 6월)
- 대안미디어 너머(7월 17일 창간. 출판 계획)에 통일칼럼을 보내고 있다.

■ 홍보위원의 칼럼 수 - 30 편

순서	홍보위원 명단	칼럼	순서	홍보위원 명단	칼럼
1	이종섭(6.15경기본부 홍보위원)	4	6	문영희(6.15경기본부 운영위원)	3
2	범상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2	7	수산스님(6.15경기본부 지도위원)	3
3	박영락(수원 밀알교회 목사)	3	8	안영옥(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	3
4	노세극(6.15경기본부 홍보위원)	4	9	한상진(경기남부평통사 사무국장)	5
5	박길수(동학민족통일회 집행위원)	3			
		16			14

■ 월별 칼럼 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칼럼 수	3	3	4	4	1	2	30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칼럼 수	3	4	2	2	2	0	

2. 조직 강화 사업

① 접촉 확대를 통한 조직의 결속력 강화

◆ 계획

- 집행부의 소속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간담회, 단체의 주요행사에 참여한다.
- 소속단체의 회원 연락망(이메일, 문자)에 6.15경기본부의 연락처가 링크되게 한다.
- 주요 사업에 소속단체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하여 결합 기회를 높인다.
- 각 소속단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일사업을 개발하여 공동으로 진행한다.

◆ 결과

- 소속단체에 대한 방문 횟수는 전년도에 상반기에는 많았으나, 하반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소속단체와의 연락망 링크 사업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 (9곳 - 전농경기도연맹, 6.15수원, 6.15안산, 6.15안양, 경기남부평통사, 한국노총경기본부, 경기진보연대, 경기민언련, 수원시국회의(촛불) 등 연결)

- 주요 사업에 소속단체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잘 구성하지 못 했다.
- 각 소속단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 통일사업 추진은 5단체이다.
 - 전농경기도연맹의 : 농경체험한마당 부스 참여, 통일쌀경작지 모내기행사, 가족수련회 통일골든벨 참여
 - 경기남부평통사. 6.15수원본부, 경기진보연대 : 평화통일 관련 캠페인 공동 진행
 - 전교조경기지부 통일위원회 : 2014청소년 평화통일국토순례
 - 6.15수원본부, 통일나눔 : 강좌사업

◆ **평 가**

- 집행부의 소속단체에 대한 방문 활동이 초반에는 왕성하였으나 사업이 본격화되는 3월 이후부터는 주춤하였다. 연초는 총회라는 계기를 통해 방문하기 용이했으나 이후에는 방문할 계기를 잘 살리지 못 했다. 소속단체와의 관계를 높여려는 이 사업은 단시일에 결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타 단체와 일상적으로 만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 소속단체와의 연락망 링크 사업은 잘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
- 5단체 외에도 타 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② **조직의 확대, 강화 사업**

◆ **계 획**

- 집행위원을 확대, 강화하며 시군본부 건설에 노력한다.
- 상근자 1명 보강과 집행부의 역할과 능력 향상(조직, 교육, 대외, 총무 등)
- 경기지역 제 단체와의 연대 연합을 강화한다.(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회의의 참관)
- 경기지역 명망 인사(정치인, 종교인 등)들을 6.15경기본부 고문, 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 **결 과**

-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가 재가입하였다.
- 집행위원이 추가 되지 않았고 부천과 의정부의 6.15지역본부 건설을 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시군본부 건설은 되지 않았다.
- 사무차장 인선은 결과적으로 잘 안되었고 교육국장은 사임하였다.
- 경기지역 연대단체의 회의에 참관함으로써 제 단체와의 연대력을 높였다.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회), 경기진보연대 회의(8회), 경기교육희망연대 회의(13회), 박근혜퇴진경기공투본 회의(4회), 세월호 경기대책위(1회) 참관
- 경기지역 명망 인사들을 6.15경기본부 고문,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지 못 했다.

◆ **평 가**

- 평택연대회의가 재가입(7월)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 각 부서의 완결성(기획, 집행, 평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지는 더 완결성을 높이면서 소통도 더 잘되어야 한다.
- 집행부의 보강에 실패하였다. 새롭게 집행부를 인선할 때는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
- 교육국장과 사무차장의 전임 상근이 되도록 노력하며 대외협력국장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국회의원, 도의원을 추가로 고문, 지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③ 소식지 발행

◆ 계획

- 매월 6.15경기본부 고문, 감사, 지도위원, 후원회원, 공동대표, 교육위원에게 발송한다.

◆ 결과와 평가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 증감
발송부수	181	185	187	187	189	185	2,080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발송부수	185	184	197		197	197	

- 비용 절감을 위해 소식지를 웹진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준비 미비로 전환되지 못 했다.
- 소식지 구성내용이 거의 소진되었다. 내용 구성을 위한 기획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④ 2014년 보조금 신청 사업

◆ 계획

- 1천5백 만원을 목표로 했다.

신청 단체	신청 사업	신청 날짜	결과
경기도청	2014 찾아가는 통일교육(8,900)	1.16	1,800,000
	제2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10,600)	1.16	1,800,000
	2014년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6,400)	1.16	2,300,000
	2014년 통일강사아카데미(5,400)	1.16	2,000,000
	청소년 통일캠프(12,100)	1.16	탈락
수원시	평화통일인문학기행	13.8.21	탈락
4.9통일평화재단	평화통일인문학기행	3.18	탈락
	6.15해외측 인사 초청강연회	3.18	탈락
합 계			7,900,000

◆ 결과와 평가

- 1천 5백 만원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7백 9십 만원 밖에 안 되었다.
- 다양한 사업의 확대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확보 노력은 계속해야 하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기에는 불안한 면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후원회원의 확대와 수입구조의 분산, 안전한 재정 수입처가 필요하다.

■ 회의 출석 상황

■ 회 의

번호	회의 내용	13년	14년(상반기)	14년(하반기)	2014년
1	총회	1회	1회	0회	1회
2	운영위원회 회의	11회	4회	5회	9회
3	집행위원회 회의	10회	4회	6회	10회
4	집행부 회의	39회	22회	18회	40회
5	연대회의, 실천활동	20회	46회	28회	72회

■ 운영위원 회의 출석표

번호	운영위원	1차 (1.28)	2차 (3.18)	3차 (4.29)	4차 (5.19)	5차 (8.25)	6차 (9.29)	7차 (10.27)	8차 (11.24)	9차 (12.29)	출석률
1	상임대표	0	위임	0	0	0	0	0	0	0	100
2	6.15수원본부	위임	0	위임	위임	0	0	위임	위임		98
3	6.15안산본부	위임	0	위임	0	위임	0	0	위임	위임	100
4	6.15안양본부	위임	대리	위임	위임	위임				위임	66.6
5	경기청년연대	0	0	0	위임		위임	위임	0	0	98
6	민주노총경기본부										0
7	새정치민주연합경기도당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55.5
8	전교조경기지부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0		위임	위임	98
9	전농경기도연맹	위임						위임		위임	33.3
10	정의당경기도당										0
11	통합진보당경기도당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55.5
12	한국노총경기본부	위임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77.7
13	집행위원장	0	0	0	0	0	0	0	0	0	100
	출석률	84.6 (38.4)	76.9 (61.5)	61.5 (30.7)	53.8 (23)	53.8 (30.7)	69.2 (61.5)	69.2 (46.1)	69.2 (46.1)	53.8 (23)	

※ 하단 출석률에서 ()는 대리, 참석만으로 계산.

■ 집행위원 회의 출석표

번호	집행위원	1차 (3.11)	2차 (4.17)	3차 (5.9)	4차 (6.19)	5차 (7.17)	6차 (8.21)	7차 (9.23)	8차 (10.22)	9차 (11.21)	10차 (12.23)	출석률
1	6.15수원본부	0	0	0	0	0	0	0	0	0	0	100
2	6.15안산본부						0					10
3	6.15안양본부			0								
4	경기남부평통사	0	0	0	0	0		0	0	0	0	90
5	경기청년연대	0	0				0	0	0		0	90
6	민주노총경기본부	0	0	0	0			0	0	0	0	80
7	전농경기도연맹	0	0	0		0	0		0	0	0	80

8	진보정의당경기도당											0
9	통합진보당경기도당											0
10	사무처장	0	0	0	0	0	0	0	0	0	0	100
11	집행위원장	0	0	0	0	0	0	0	0	0	0	100
참관	경기진보연대	0			0	0		0	0	0	0	
	출석률	63.6	63.6	63.6	45.4	45.4	54.5	54.5	63.6	63.6	63.6	

- 6월, 7월 운영위원회 회의가 무산되었고 집행위원회는 1월 2월에 진행되지 않았다.
-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출석률이 높지 않다.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3. 평화통일 교육 사업

① 2014 찾아가는 통일교육

◆ 계 획

- 경기도 보조금(1백 8십 만원)으로 진행한다.

◆ 결 과 와 평 가

- 지역아동센터, 경기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16회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하였다.
- 지역아동센터 중심에서 조금씩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이 증대되고 있다.
- 지역, 부문 단체에서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 강사아카데미 - 심화과정

◆ 계 획

- 통일강사 아카데미 5차, 6차 심화과정을 진행한다.

◆ 결 과 와 평 가

■ 교육위원 5차 심화과정 개요

- 장 소 :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 일 정 : 3월 18일 ~ 4월 1일까지 총 3강 진행(3월 25일 1차 워크숍 진행)

■ 교육위원 6차 심화과정 개요

- 장 소 : 안양 율목 생협
- 일 정 : 8월 5일 ~ 8월 26일까지 총 4강 진행(8월 12일 2차 워크숍 진행)

◆ 결과와 평가

- 5차 심화과정 참가자는 15명, 6차 심화과정 참가자는 16명 참석
- 갈등, 협상, 조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 더 많은 교육위원이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4. 재정 사업

◆ 계획

번호	재정 확대 내역	14년	결과	집행율
1	공동대표 확대를 통한 확충	0	-10,000	
2	고문, 감사, 지도위원 후원금 확충	20,000	0	
3	후원회원 확충	500,000	249,000	
		520,000	239,000	45.9
4	도, 기관 보조금	15,000,000	7,900,000	
5	교육후원	23,190,000	24,387,697	
6	민족21 경기지사(10명)	100,000	0	
7	재정 사업	1,500,000	0	
		39,790,000	32,287,697	84.3

① 후원회원을 늘린다.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한다.
- 후원금액이 월 50만원이 늘어나도록 노력 한다.

② 재정사업을 한다.

- 추석에 재정 사업을 하여 1백5십만원을 마련한다.

◆ 결과인 평가

① 공동대표 확대, 회비 재조정을 통한 확충 => 현 -1만원

- 1월 : 양홍관(-1만원)

② 고문, 감사, 지도위원의 후원금 확대 (고문:17명/지도위원:21명/감사:2명) => 현 0원

③ 후원회원[목표: 50만원]

- 2014년 1월 115건 988,000원에서 12월 123건 1,283,000원
- ※ 2014년 월 평균 1,136,000원

④ 사회단체 보조금[목표 1천5백만원] => 현재 7,900,000원

- 경기도(5건) : 7,900,000원

⑤ 교육후원[목표 : 2천3백1십9만원] => 현재 24,387,697원

⑥ 민족21 경기지사[목표 : 1십만원] => 현 0원

⑦ 추석 재정 사업[목표 : 1백 5십만원] => 현 0원

안건 3. 2014년 결산안 심의의 건

[주문사항 : 2014년 결산안을 심의해주십시오.]

⇒ 별 지

안건 4. 2015년 임원 선출 건

[주문사항 : 2015년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6.15경기본부 임원 선출 안 >

임원	이름	소속
상임대표(1명)	윤기석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감사(2명)	이주현	매원교회 목사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운영위원(11명)	현지환	경기청년연대 의장
	김성현	정의당경기도당 위원장
	이상언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본부장
	허원	한국노총경기도본부 의장
	최창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지부장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
	박길용	6.15안양본부 상임대표
	신동선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이종철	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임득선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영욱	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

안건 5. 2015년 사업계획서 심의의 건

[주문사항 : 2015년 사업계획서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 . 2015년 정세 전망과 과제

- 민주진보세력과 보수수구세력간의 대립이 극대화 되고, 남한사회 내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이후 민주진보진영을 분열, 압박시키려는 공안탄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 될 것이 예상된다.
 - 서북청년단, 일베 등 수구보수세력의 백색테러, 언론왜곡, 종북몰이 등 이남사회 우경화와 남남갈등이 더욱 심화 될 것이다.
 - 경제위기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민영화, 구조조정, 연금개혁, 비정규직 확대, 청년실업 증가 등 사회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다.

-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긴장고조와 남북관계 악화가 지속될 것이다.
 - 일본의 극우화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 중러군사 동맹 시도 등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나, 구체적 행동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되어 남북관계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 일시적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관 중심, 경제 중심의 선별적, 제한적 교류협력에 국한될 수 있다.
 - 미국의 대북 고립정책 심화 등 북미 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등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광복70년, 분단70년,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평화통일의식 증진과 평화통일세력의 단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 광복 70년, 분단 70년, 6.15공동선언 15년을 계기로 경기지역 자주통일역량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 시별 통일한마당 복원, 평화통일교육 확산 등 평화통일의식증진사업 확대가 요구된다.

II . 2015년 경기본부 사업 방향

① 광복70년, 분단70년, 6.15공동선언 15주년을 기점으로 광범위한 경기지역 평화통일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부문·지역에 통일주체를 마련한다.

② 소속단체와의 결속력을 높여내고, 지역별, 부문별 평화통일사업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③ 평화통일교육을 광범위하게 진행한다.

④ 민주, 민생, 평화 운동에 적극 연대한다.

III . 영역별 사업 내용

1. 6.15 공동선언, 10.4선언 대중화 사업

1) 대중사업

① 6.15공동선언 15주년! 광복과 분단 70년 맞이 경지지역 사업

○ 경기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및 광복과 분단 70년 추진위(가칭)을 폭넓게 구성하고, 추진위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 시군별 추진위 건설을 제안하고, 지원한다. (시군별 통일한마당 진행 등)

○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주관을 설정하고 경기지역, 시군별 기념행사,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적극 지원한다.

○ 기념주관에 각계각층과 시군에서 '평화통일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② 6.15공동선언 15주년 기념사업

○ 6.15공동선언 15주년 기념사업을 추진위(안)와 함께 진행한다.

③ 10선언 8주년 기념식 및 제3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 10.4선언 발표 8주년 기념식 및 제3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을 진행한다.

<1부 10.4선언 발표 8주년 기념식>

- 일시 : 2015년 10월 9일(목, 한글날) 오후 2시
- 장소 : 수원

<2부 제3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

- 일시 : 2015년 10월 9일(목, 한글날) 오후 2시
- 장소 : 수원
- 참가대상 : 누구나
- 참가비 : 2만원(팀당)
- 참가규모 : 150팀(2인 1조) 300명
- 주최 : 6.15경기본부
- 주관 : 경기평화교육센터

④ 정세 대응 관련 활동 강화

- 민주주의 수호, 전쟁반대, 평화실현 등 각종 투쟁을 소속단체, 경기지역 제 단체와 잘 협력하여 진행한다. (1인 시위, 캠페인, 촛불 결합, 기자회견 등)
- 3.1절, 5.24조치 5년, 한일협정 50년,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남북 공동응원단 참여 등 계기별, 사안별 사업을 진행한다.
- 공안탄압 저지, 민주, 민생, 평화 등 여러 사안에 적극 연대한다.
- 여러 현안에 대한 6.15경기본부의 입장(논평, 성명서)을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한다.

⑤ 2015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고, 토론회를 진행한다.

<2015년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1차 토론회>

- 일시 : 2015년 4월 24일 오후 3시
- 장소 : 수원
- 주제 : 광복과 분단 70년의 의미와 경기지역의 과제

<2015년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2차 토론회>

- 일시 : 2015년 8월
- 장소 : 수원
- 주제 : 전국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⑥ 북, 해외 교류협력 사업 모색

- 조선학교 돕기 방문, 지원 등을 모색한다.
-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공동응원단을 구성한다.

⑦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 추수 국민농활

-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5월 31일), 추수행사(11월 초) 국민농활을 대중적으로 진행한다.

2) 선전 여론 사업

① 홍보위원회 활동

- 홍보위원을 추가하고 칼럼을 보내는 언론사를 확대한다.
- 칼럼을 홈페이지에 기고하고, 6.15경기본부 대표와 후원회원들에게 메일로 발송한다.

② 홈페이지 활용

- 신설된 홈페이지(www.kg615.org)에 성명서, 칼럼 등을 정기적으로 기재한다.
- 6.15경기본부의 활동소식과 경지지역 소식을 정기적으로 기재한다.
- 주요 사안과 행사에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한다.

2. 조직 강화 사업

① 접촉 확대를 통한 조직의 결속력 강화

- 집행부의 소속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간담회, 단체의 주요행사에 참여한다.
- 소속단체의 회원 연락망(이메일, 문자)에 6.15경기본부의 연락처가 링크되게 한다.
- 각 소속단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일사업을 개발하여 공동으로 진행한다.
- 6.15경기본부와 시군지역, 부분과 통일적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조직의 확대, 강화 사업

-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결정사안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 집행위원을 확대, 강화하며 시군본부 건설에 노력한다.
- 상근자 보강하여 집행력을 강화한다.
- 경기지역 제 단체와의 연대연합을 강화한다.(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회의 참관 등)
- 경기지역 명망인사(정치인, 종교인 등)들을 6.15경기본부 고문, 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소식지 발행

- 매월 6.15경기본부 고문, 감사, 지도위원, 후원회원, 공동대표, 교육위원에게 발송한다.
- 소식지 구성에 대한 기획을 다시 한다.
- 웹진으로 제작해 제작비용 감축과 활용도를 높인다.

3. 평화통일 교육 사업

1) 통일강사 양성 사업

① 교육위원 7차, 8차 심화과정

○ 교육위원 7차 심화과정

- 일시 : 2014년 4월 3일(금) ~ 4월 24일(금) 매주 화요일
- 강좌수 : 4회(14시 ~ 17시 : 3시간)

○ 교육위원 8차 심화과정

- 일시 : 2014년 8월 4일(화) ~ 8월 19일(화) 매주 화요일
- 강좌수 : 3회(14시 ~ 17시 : 3시간)

2) 평화통일교육 사업

- 목표 - 평화통일 교육을 대중화, 전문화, 다양화한다.
- 소속단체 및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교육사업을 확대한다.

① 찾아가는 통일교육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
- 교육대상 :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교사,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한다.

② 평화통일인문학기행

- 강화, 파주, 철원 등지로 평화통일인문학기행을 각계각층으로 조직하여 진행한

안건 **6.** 2015년 예산안 심의의 건

[주문사항 : 2015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지**

별 첨 홍보위원회 2013년 칼럼 목록

■ 1월 - 3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1월 2일	아베이 야스쿠니 참배와 한빛부대 실탄지원으로 바라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한상진	1월호
1월 17일	씨를 뿌려야 열매 맺을 것 안니가	박영락	1월호
1월 24일	통일대박이라는 말은 두가지의 뜻을담고 있다	이종섭	

■ 2월 - 3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2월 10일	우리사회의 이중 잣대	노세극	2월호
2월 24일	대화에 찬물 끼얹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재개하라!	한상진	
2월 26일	동학농민혁명, 민족통일시대를 여는 고동이 되라	박길수	

■ 3월 - 4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3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준비'와 미국의 대북 강경발언	문영희	3월호
3월 14일	구동준이	안영옥	3월호
3월 21일	원칙과 약속을 지키자	수산스님	
3월 28일	한미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미일군사동맹과 미사일방어체제 편입기도를 규탄한다	한상진	

■ 4월 - 4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4월 3일	남북관계도 봄날처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을까	이종섭	4월호
4월 10일	신뢰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박영락	4월호
4월 24일	세월호와 다를바 없는 대한민국호	노세극	5월호
4월 30일	그들은 영웅입니다	박길수	

■ 5월 - 1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5월 8일	'통일대박'의 환상에서 깨어나자	문영희	5월호

■ 6월 - 2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6월 20일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 아베정권 규탄한다	한상진	6월호
6월 26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수산스님	

■ 7월 - 3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7월 4일	반성 없는 일본은 정상국가가 될 수 없다	안영욱	
7월 9일	종북논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이종섭	7월호
7월 14일	차별과 억압은 정의가 아니다	범상스님	7월호

■ 8월 - 4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8월 8일	세월호 정국과 이순신의 리더쉽	노세극	8월호
8월 14일	아직도 무엇이 두려운가	문영희	
8월 21일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박길수	8월호
8월 28일	세상은 마음의 거울이다	수산스님	9.10월호

■ 9월 - 2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9월 18일	평화의 숨결, 한반도의 미래	박영락	
9월 26일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한상진	9.10월호

■ 10월 - 2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10월 17일	냉탕과 온탕을 오가지만	안영욱	
10월 30일	전시작전권 연기와 대북전단살포에서 평화가 꽃필 수 있을까?	이종섭	

■ 11월 - 2편

날 짜	칼 럼 제 목	칼럼자	소식지
11월 11일	쪽팔리지 말자	범상스님	11월호
11월 14일	코스타리카에서 배우자	노세극	11월호

□ 홍보위원회 2014년 칼럼 □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와 한빛부대 실탄지원으로 바라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한상진(6.15경기본부 홍보위원)

2013년 성탄절을 전후로 들려오는 일본의 행보에 일본 내부의 목소리와 세계 각국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오히려 일본의 직접 침략을 받았고 지금도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가장 경각심을 높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한국의 고민과 비판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든다. 이 글에서는 궁극적으로 일본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며 막아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는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상징적이면서도 아직도 지난시기 세계평화에 도발하고 도전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다시금 군국주의의 부활과 세계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전범후손들의 성지가 되어버린 역사의 현재인 곳이다. 이곳을 아베총리가 7년 만에 참배를 위해 방문함으로써 다시금 지난 시기 일본의 침략전쟁을 기억하는 세계평화대중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일본 내 국민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베는 집권하자마자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고 자신들의 침략에 대한 형벌과 반성의 의미로 제정된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할 뜻을 밝혔다. 우리가 평화헌법이라 말하는 일본헌법 9조는 과거 침략을 반성하며 이후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군대보유금지와 교전권을 포기한 내용이다. 통렬한 자기반성이며 법제화를 통한 무장포기의 내용인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국제사회를 통한 군국주의적 침략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희석화시키기 위해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기만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일본의 현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지난 12월23일 유엔 남수단임무단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 한빛부대에 실탄 1만발을 제공한 것은 우리가 쉬이 넘길 일이 아니며 미국의 주도와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많은 부분 현실화 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완성을 위한 시도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사실에 기초해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한국 언론의 보도와 같이 현지사정이 급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빛부대가 주둔중인 보르지역은 인근 공항과 시내를 정부군이 완전 정악한 상황에서 반군의 반격이 시도되는 곳으로 반군측도 유엔의 평화유지군에 대해서는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고 상식적으로 반군이 유엔을 향해 무력을 행사할 이유도 능력도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상황을 호도하며 실탄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수락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실탄지원 결정은 자위대 현지 지휘관의 결정이 아닌 최근 신설된 일본 NSC에 의해 이루어

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시다 외무장관은 이번 탄약 제공이 일본의 국제평화협력법 물자협력조항2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이는 “물자협력‘에 탄약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역대 일본내각의 국회답변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며, 2004년 개정된 미-일 물품 및 용역 상호지원협정 (미일ACSA)에 탄약을 제공가능품목으로 추가는 하였으나 이 경우도 ‘무력공격사태와‘와 ‘무력공격예측사태‘에 한정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 예가 없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하고 이것이 아베가 천명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9월26일 유엔 총회에서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평화유지활동 등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조처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연설하고 이른바 ‘평화유지활동‘을 자신들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실탄제공이 지난 이명박 정권시절 국민들의 저항으로 중단된 한일군사협정 체결시도의 연장 에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직전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로 서명직전에 철회되었지만 한일 및 한미일 사이의 군사동맹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강력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특히 우리 국민들의 한일 군사협력에 강한 거부감을 감안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에서 그것도 유엔평화유지활동이라는 이른바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한 한일군사협력이 한일 당국 사이에 매력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한 현실이다.

현지의 사정이 알려진 것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루어지는 것은 중단된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정지작업 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과거사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한국 과 일본이 이번 탄약제공처럼 서로 협력한다면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을 안심 시키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이에 우리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을 핑계로 중단된 한일 군사협정체결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중국을 포위 하고 동북아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잘 파악하고 경각심을 늦춰서는 않 될것이며 동북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우리 민족앞에 드리워진 위기 타계와 지역내 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2014.01.02.)

씨를 뿌려야 열매 맺을 것 아닌가?

박영락(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셨다.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내용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짜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가 되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실패가 거듭될지라도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또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매 맺으려면 씨앗부터 뿌려야 한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무럭무럭 잘 자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뿌리고 또 뿌릴 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한 기자가 “국민들 중에는 통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굳이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질문하자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고 단호한 표정으로 “나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맞는 말이다. 통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대박임에 틀림없다. 국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군사비를 줄임으로써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강성한 자주 국가를 이루어 가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항시적인 전쟁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면에서도 평화와 통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정부의 견해에 반하는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으로 몰리고 빨갱이로 정죄 받아야 하는 비이성적이고 비민주적인 현실 역시 남과 북의 하나 됨을 통해서 해소되고 치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한 경쟁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리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해와 협력, 대화와 상호 교류라고 하는 씨앗은 뿌리지 않은 채 통일이라고 하는 대박 열매만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책 한 번 들여다보지 않고 수능만점의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은 헛된 꿈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통일을 위해서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수고는 외면한 채 오히려 남이 뿌려놓은 씨앗까지 짓밟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진심으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5·24 조치를 공식적으로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말로 통일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끊겨 버린 남북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 상호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니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하는 부질없는 주도권 싸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통 큰 양보와 포용으로 북을 끌어안고 하나 됨의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물론 씨를 뿌리다 보면 실패할 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애써 뿌린 씨앗이 돌짜 밭에 떨어져서 새들의 먹이가 되어 버릴 수도 있고 길가에 떨어져서 말라죽어 버리는 일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농부는 포기하지 않는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바지춤을 걷어 올리고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씨를 뿌린다. 열매 맺을 때까지!! 제발 씨부터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자. 뿌리는 시늉만 하다 말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뿌리고 또 뿌리자. 농부의 이 소박한 지혜를 통해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배우고 익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한다.

(2014.01.17.)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중 섭(6.15경기본부 홍보위원)

2014년은 대통령이 유행어를 남기면서 시작하고 있다. 임기 1년이 채 되기 전에 불통(不通), 공약파기로 심각하게 민심(民心)이 돌아서는 가운데,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한 것에 이어 얼마 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통일은 동북아시아 주변국가에도 대박”이라며 강조했다.

이 말은 남북관계가 지난 이명박 정부 이래로 막혀있던 것이 풀리려는 징조일까?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은 그와는 반대일 듯싶다.

작년 말 일부 언론에 남북전쟁을 상상케 하는 불길한 보도가 나왔다. 2013년 12월 23일자 조선일보에는 국정원장 남재준이 원장공관의 간부 송년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한 점도 거리낌 없이 다 같이 죽자.”며 각오를 밝혔고 참석자의 전언은 “조국 통일 달성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국가 보안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조국통일을 위한 ‘구체적 플랜’도 논의 했다. 오는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에 이어 12월 25일자 리차드 아미티지 전 미국방부장관의 “북한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내부 반란이든, 외부 개입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그냥 한 사람의 거침없는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현직 국정원장이라는 무게와 책임에 웃고 넘어가기에는 심각하게 걱정되는 발언이다. 남재준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다. 군인도 아니다. 그런데 전쟁통일 의심의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북한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전쟁에 준하는 것이다.

또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4년 1~3월에 북한의 도발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작년 12월부터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나오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은 정상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염두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박근혜 임기 내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등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갈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보인다.

마치 경제적 효과를 염두해 둔 듯한 표현인 ‘대박’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실제 북쪽에 있는 광산물의 효용가치나 석유 매장에 대한 추측과 함께 보이지 않는 자원에 대한 가치는 실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통일의 미래를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남북교류협력으로 신뢰를 쌓고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득이 되는 면이 많다. 실제로 통일까지 가는데 드는 분담비용보다 통일 이후의 통일이득이 훨씬 더 크다는 통계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경제적 효용가치면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가치로 분단국가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불안감과 긴장,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도와 법이 인권과 존중을 제한하고 가로막는 되는 인간으로서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통일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진행되는 평화로운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대박’일 수 있는 것이다.

작년에 이은 2014년 1~3월 전쟁위기는 60여 년 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 오히려 ‘전쟁위기’에 무감각해진 우리 국민들에게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전후로 고조될 위기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 초 북한은 지난 16일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단하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위원회 명의의 '중대 제안'을 우리측에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 ‘남한 당국자들 자신부터 입건사를 잘하고 언론매체들을 관계개선 분위기

조성으로 이끌어 조선반도 전역에 화합과 단합의 열풍이 일게 하여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서해 5개 섬의 ‘열점지역’을 포함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전면중지할 것을 강조한다.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위장공세’, ‘심리선전’이라며 결론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러나 진정으로 평화적인 “통일은 대박”을 꿈꾼다면 상호 신뢰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느 지나쳐도 문제가 되지 않다. 최소한 어느 한 쪽이라도 “잘 해보자”라고 한다면 잘 해보겠다고 응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의심하고, 경계하고, 전쟁훈련하고, 이런 가운데 평화와 통일은 없다.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에 걸맞는 대답을 하고, 상호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 1992년 남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올해 3월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14년 새해는 올해만이 아니라 몇 년을 두고 보더라도 중요한 때임은 분명해보인다.

(2014.01.24.)

우리 사회의 이중 잣대

노세극 (615 경기본부 홍보위원)

한 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돈 많으면 죄가 있어도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으면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실태를 비꼬는 말이다. 실제로 돈 많은 재벌이나 그 자식들은 범법행위를 했음에도 솜방망이식 재판 후에 슬그머니 빠져 나오는 것을 목도한게 한 두번이 아니었다. 한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사건의 경우 성상납을 강요받아 괴로움에 견디지 못하여 죽었음에도 아무도 처벌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양상으로도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김용환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선 직전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외압 축소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한 정황과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사건임에도 죄가 없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실정이니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는 것은 교과서에나 있는 이야기고 현실은 법이야말로 강자의 이익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이중 잣대가 작동하는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정의도 민주주의도 설자리가 없는 사회이며 한마디로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러한 이중 잣대가 정치 사회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핵 문제만 해도 그렇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핵심요인으로 또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긴 것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온지 오래다. 그런데 남한 내에 1958년부터 미국의 핵이 반입되어 북한에 줄곧 위협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것에는 애써 눈을 감고 침묵하고 있다. 북이 가지고 있는 핵은 악이고 남한 내에 있는 미국의 핵은 선인가? 미국의 핵무기는 평화를 위한 것이고 북한의 핵은 평화를 해치는 것인가? 이러한 논리가 상식적인 기준에서 합당한 것인가? 삼척동자가 봐도 불합리한 이러한 이중 잣대가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지금 세계에 미국을 위시해서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대 강대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 강대국들은 국제조약인 NPT(핵비확산조약)에 의해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용인을 하고 나머지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제조 반입 운반 등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으며 유독 북한의 핵과 핵무기를 가질 것으로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 삼고 있다. 국제 사회도 이중 잣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 훈련이 실시된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이를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훈련이라고 하고 북한에선 대북 공격용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 훈련의 성격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선 한미연합 훈련 자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만약 북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항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끌어들여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팬찮고 조중 또는 조러 사이에 하는 군사훈련은 나쁜 것인가? 한미 군사력에 대항하여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남한과 미국에선 거센 비난을 하여 온 마당에 북한 정권이 중국이나 러시아 군대를 끌어들여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면 아마 더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남한 영토 안에는 수많은 미군기지가 있으며 수도 한복판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북한 영토 안에

아니 평양 한 북관에 중국이나 러시아 군대 기지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북한 핵에 대해서 비난하고 군대를 우선시 하는 선군정책을 비판하고 경제가 낙후된 북한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북한이 남한처럼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고 군대를 끌어들이며 합동군사 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기지를 제공한 가운데 오로지 경제 우선의 정책을 써서 지금 보다 잘 살게 되는 길이 민족적으로 바람직한 길인가?

북에선 평화체제만 보장해 준다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한미 당국은 이를 거부해 왔다. 그리고 북에선 줄곧 정전협정 대신에 평화협정을 맺자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이를 묵살해왔다.

남과 북에 대해서 민족적 견지에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해야 함에도 우리 사회는 이중 잣대에 익숙해 있다. 외국 군대에 의존하고 군사주권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이를 너무도 당연시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각 없이 통일대박 운운하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은 잠꼬대 같은 헛소리일 뿐이다.

(2014.02.10.)

대화에 찬물 끼얹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재개하라!

한상진(6.15경기본부 홍보위원)

한미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독수리(Foal Eagle) 연습이 2월 24일~4월 18일까지 실시된다.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5천 2백명이 동원되고, 전구급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에는 한국군 20만명과 미군 7천5백여명이 동원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 연습이다.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 대화국면을 파탄내고 또다시 전쟁위기를 부를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연습이다. 이러하기에 한미당국은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1. 어렵게 열린 대화국면을 대결국면으로 되돌릴 수 있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라!

북의 장성택 처형사건 이후 한미당국은 ‘북한 변화 유도 방안’ 협의를 위한 ‘북한 정세 평가 고위급회의’를 신설하기로 했고, 케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한반도 통일문제 논의를 추진했다. ‘통일 대박론’을 앞세운 박근혜 정권은 흡수통일을 가능성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결로 치닫던 남북이 7년 만에 고위급회담을 열고, 우여곡절 끝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남북 사이의 불신이 여전히 심각하고 대화의 끈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지만, 남북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진 만큼 양측은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당국이 ‘북한 변화 유도’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의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벌이는 것은 남북 대화와 협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또다시 대화 단절은 물론 침예한 대결국면을 불러올 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에 어렵게 열린 대화국면을 대결국면으로 되돌릴 수 있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핵전쟁 위기 부르는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적용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라!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서는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억제전략’이란 원래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막고, 만약 전쟁위기가 조성되었을 때는 이 위기가 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것이다.

한미 양국군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선제타격훈련을 전개할 대상에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관련 시설도 포함된다. 이 역시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재래전을 핵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족의 생명과 생존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다.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을 위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관련 무기체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올해 연습에는 2013년 3월에 한미가 합의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지휘세력까지 타격한다는 이 계획은 비례성과 필요성의 원칙을 넘어서는 자위권 행사로서 전면전을 부르는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전시가 아닌 평시에 한미연합군을 투입하는 특수전 훈련이나 북한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심리전 훈련도 전개된다. 이 또한 확전을 유발할 수 있는 도발적인 훈련이다.

3월 말 포항 일대에서 벌어지는 한미 연합상륙훈련은 1만여 명의 병력과 대형수송기, 대형상륙함,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등 최신 장비들을 동원하여 최단시간 내에 평양을 점령하려는 훈련이다. 연합상륙훈련에 미 해병대가 5,000명이나 투입되는 것은 팀스피리트 연습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 훈련은 한미연합군이 원산일대에 상륙해 평양~원산 축선 이남을 차단하고 평양을 점령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전형적인 공격훈련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 핵전쟁 위험성을 높이고, 국지적 충돌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3. 국제법과 헌법 등에 위배되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라!

위와 같이 한미당국은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전쟁연습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 한미당국자들도 공공연히 대북 선제공격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킬 체인 등 선제공격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미당국은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연습은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 등에 따른 것이다.

이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자위권을 허용하는 유엔헌장 51조와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 4조와 5조에 위배된다. 대규모 병력과 공격적 장비를 동원하여 2개월 동안이나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그 자체로 유엔헌장(2조 4항)이 금지하는 무력 위협에 해당한다. 또한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국 국경 외에서의 인원과 장비 등 무력 증강을 금지한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ㄷ, ㄹ 목에 위배된다. 대북 선제공격의 작전계획 5027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부의 국방목표에도 위배된다.

이에 국제법과 헌법 등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4.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실현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라!

60년 이상 끊이지 않는 전쟁위기는 분단과 정전체제에서 비롯된다.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전쟁위기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시키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을 남북과 미국, 중국 등 한반도와 주변의 당사국들에게 촉구한다.

(2014.02.24.)

동학농민혁명, 민족통일시대를 여는 고동이 되라 -남과 북이 함께 준비하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박길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올해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주년이 되는 ‘두 갑자 갑오년(甲午年)’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핵심 구호는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로 집약된다. 이는 ‘반봉건 반외세’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은 동학란, 동학운동, 갑오농민전쟁, 동학혁명 등으로 다양하였는데, 중등교과서에서는 여전히 ‘동학운동’이라고 하지만 역사학계나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대세가 되거나 굳어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명칭의 변천에는, 그것의 성격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개재하고, 그것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들이 배경에 놓인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동학농민혁명의 ‘보국안민’과 ‘척왜양창의’ 정신은 120주년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세월의 간격만큼, 그동안 발달한 우리 사회의 인지 능력, 변화한 삶의 조건에 따라 그 내포는 달라졌을지언정, 그것을 표현하는 구호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시대의 최대, 최고의 급선무인 ‘민족통일’도 결국은 보국안민, 척왜양창의의 과정이자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당시는 동학에 대한 열기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뜨거웠고, 각계각층에서 동학을 공부하고, 기념하고, 토대로 삼아 운동하는 다종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80년대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축적된 열기와 각종 문화적 활동력이 하나의 분출구를 찾아 폭발하는 양상과도 맞물렸다.

10년 전인 2004년 110주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국가적으로 공인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서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었지만,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열기는 현저히, 100주년에 비해 상전벽해라 할 정도로 저조했다. 혁명의 역사를 그리워할 동력이 사라지던 정치사회적 여건(‘국민-참여정부’)도 한몫을 했다.

그런데 올해, 120주년에는 ‘두 주갑’, ‘갑오년’이라는 키워드에 기대어 그 열기가 서서히 조성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동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화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동학농민혁명이 단지 한반도 내의 조선(민족)을 위한 보국안민과 반외세 운동이었다는 소극적 인식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한-중-일) 전체, 나아가 ‘지구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부각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동학농민혁명은 ‘과거의, 민중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민족운동, 평화운동, 생명운동의 핵심적인 이념과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러한 인식의 전환은, 다시 민족통일이라는 당면한 민족적 과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동학이 민족통일과 연결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동학은 현재의 남과 북이 동시에 높이 평가하는 역사이고, 남과 북에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가 주요한 종교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천도교의 전위단체(남-동민회, 북-청우당)가 정치사회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일한

조직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거론된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보국안민, 척왜양창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여 민족통일을 이루는 것은 물론, 그것을 계기로 한, 혹은 그것의 전제조건으로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제기되는 과제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물질 위주의 질서에 시천주(侍天主; 사람은 물론 만물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사인여천(事人如天; 사람을 한울님처럼 섬긴다), 삼경(三敬; 敬天, 敬人, 敬物) 같은 동학의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신문명의 일대 도약을 이루는 ‘다시 개벽’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최근 중국 라오닝성(遼寧省) 선양(瀋陽)에서 남북 천도교 교류 협력을 위한 실무회담에 참여하였다. 남과 북에서 각각 3명씩의 교단 대표(남:천도교중앙총부, 북: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와 전위단체(남:동학민족통일회, 북:청우당)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담 중요 의제 중 하나가 바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남북의 천도교가 앞장서서, 남과 북의 동학 (우호) 세력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이 의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구체적으로 남북 천도교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남측에서는 다시 천도교단과 범 동학 진영, 즉 전국 각 지역의 기념사업회와 시민단체 등이 연대하여 기념식과 기념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다.). 남과 북의 천도교 단체(중앙총부-중앙지도위원회, 동학민족통일회-청우당) 사이에는 이러한 ‘공동 개최’ 원칙에 어떠한 이의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이 무난히 관철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성숙시키는 노력을 병행하자는 데에도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의 역사(현실)의 부조리와 불합리와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사실에 대한 관심과 조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무한정 과거로 나아갈 수는 없는 법이고, 오늘 현재의 역사의 출발점으로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갖는 것, 혹은 그러한 혁명 역사의 출발점으로서의 1860년 동학 창도 당시에 주목하는 것은 민족통일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와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에 거는 기대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이다.

(2014.2.26.)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준비'와 미국의 대북 강경발언

문영희(6.15경기본부 홍보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집권 2년차로 들어서면서 통일문제에 관한 발언을 자주 꺼내고 있다. 연초에는 '통일대박'이란 말을 쓰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집권하면 민족적 숙원인 통일문제를 풀어 보고픈 충동을 느끼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민족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통일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이것이 쉽게 풀기 어려운 난제라는데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발언을 놓고 세론은 둘로 갈리는 것 같다. 즉 긍정적 기대와 비판적 평가가 공존한다. <민족21>대표 정창현이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입장이다. 그는 박 대통령의 통일준비위 구상에 대해 "제2의 7·4남북공동성명을 구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칙적인 내용을 담은 7·4에 근거해서 나온 남북기본합의서와 10·4선언에서 합의된 구체적 실행 사안들을 '박근혜표'로 수정해서 실행하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들을 지금에 맞게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우선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가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2002년도에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3개 안 중 첫 번째가 '이산가족 상봉과 정례화'였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정례화는 성사될 거라 본다.

그다음으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 상반기 안에 발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작년 말에 중국의 상지그룹이 북한과 개성~신의주 간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MOU를 맺었는데, 그 형태가 3자 우회투자였다. 국제 컨소시엄에 남쪽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5·24조치와 관계없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통일뉴스) “라고 평가했다.

이와는 달리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대통령이 앞장 선 통일대박론은 통일 논의에 대한 금기를 풀고 논의를 활성화시킨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통일 논의가 다분히 북한의 급변사태와 급작스런 붕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비상 상황에 대처할 준비는 해야 한다"는 것이나 "그것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요란을 떨 일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대비책이 필요하다면 통일부와 같이 기왕에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부처에서 하면 된다.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야말로 통일부 본연의 업무이고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왕의 정부 부처에서 할 일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해서 실효성의 증대도 없이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염려된다."며 "통일이 정치상품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통일뉴스).

한편 올 들어 미국정부 측은 북한을 다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북한을 '악(惡)'이라고 규정하며 인권 침해와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 가운데 하나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북한의 부패와 인권 침해의 정도는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122밀리미터 대공화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런 걸 보도록 강요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인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또 미 국방부도 지난 3월 5일 공개된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에서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북한 정권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한국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준비'발언이 우리의 안보의존국인 미국과의 교감이나 물밑 협의의 결과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보수정권은 남북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눈치를 살피왔다. 한국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말하고, 미국은 더욱 강경한 대북 발언을 하고 있는 요즘,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2014.03.06.)

구동존이(求同存異)

안영욱(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올초 북은 신년사와 1월 16일 중대제안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였다. 남쪽도 통일대박론과 이산가족 상봉 제안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작년과는 매우 다른 남북한의 분위기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열리는 기간 중 이틀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과 겹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온 겨레가 축하하고 전 세계가 보내주는 박수를 받으며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2차례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렸다. 아주 감동적이었고 기쁨의 눈물을 국민 모두가 흘렸다. 이 감동을 지속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3월 6일 북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북은 “지금은 남북실무 접촉을 가질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면서 거부하였다. 남북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믿었던 희망이 사그라지는 순간이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부분이 겹쳤음에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가졌는데 이제 와서 남북 실무접촉을 가질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사실 남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존각을 다투는 인도주의 문제라며 이산가족 상봉에만 관심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더 관심을 보이면서 먼저 서로에 대한 비방 중상을 중지하고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로 바라는 바가 달랐던 것이다.

2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번 통크게 믿어보겠다’는 말을 하면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

그래서 북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끝난 후 비방중상이 중지되고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 중단되거나 중단할 수 없다면 저장도 훈련으로 완화 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3월 3일 대북민간단체의 대북 뼈라 살포와 콜럼버스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등 최첨단 무기가 참여하는 고강도 훈련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아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동만 걸어놓고 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다시 이명박 정부 5년의 파탄난 남북관계가 떠오르는 것이 단지 나만의 착각이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과 4월말까지 진행되는 독수리 훈련, 그리고 평양 상륙훈련을 가정한 쌍용훈련이 진행된다. 북한도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다양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남과 북은 서로 도발을 중단하라고 이야기 하고 대화의 손짓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만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서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한쪽이 붕괴되어 흡수하거나 무력으로 통일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제2의 6.25가 될 것이며 민족의 공멸이 될 것이다.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말이 있다. 같은 것을 추구하되 다름은 남겨둔다는 말이다.

우선 남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70년간의 오랜 분단으로 남북간에는 신뢰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신뢰하지 않더라도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동시 행동으로 해나간다면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되고 신뢰가 쌓여질 것이다.

우리 모두 구동존이의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이번 6월에는 남북해외가 한자리에 모이는 민족공동행사가 열리고 9월에는 남북 공동지원단의 흥겨운 응원이 인천에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본다. (2014.03.14.)

원칙과 약속을 지키자

수산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불교의 경전 가운데 백 가지의 비유를 모은 경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유경’이 있다. 그 내용이 우화 같이 쉽고 재미있어 단순히 우스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속에는 교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불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마음의 양식과 생활의 지혜를 심어주는 명언같은 가르침이 많다. 다음은 그 경전에 실린 짧은 이야기이다.

“어느 악사가 왕 앞에서 연주하게 되었는데 왕은 돈 천 냙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연주가 끝나고 악사가 왕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을 때 왕은 돈을 주지 않고 ‘네가 음악을 연주하였지만 그것은 한날 내 귀만 즐겁게 했을 뿐이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것도 다만 네 귀를 즐겁게 해준 것이니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이 우화는 세상의 과보(果報)에 대해 설명하면서 끝나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그만 즐거움을 받지만 그것은 참다움이 없는 것이니, 세상의 과보란 덧없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세상의 어느 것도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마치 저 음악 소리와 같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보란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와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결과를 말한다.

보통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왕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오히려 왕이 악사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돈을 위해서 연주하는 것이 예술인으로써 썩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볼 때 왕이 악사에게 교훈을 준 스승이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으로, 세상사의 무상함을 가르쳐주는 우화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했던 약속을 지키므로 해서 나의 이익이 기대에 못 미칠지라도 아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았던 옛사람들의 이야기에 감명 받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 55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한의 김대중과 김정일 두 정상이 마라톤 정상회담 끝에 합의한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감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하여 노무현과 김정일 두 정상이 합의한 2007년의 10·4남북정상선언은 우리에게 평화와 민족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역사적 사건임을 기억한다. 아무리 억지스레 궤변을 늘어놓아도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전쟁 걱정 없었던 시절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보다는 기득권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이명박 정권에서 우리는 전쟁의 두려움에 가슴 졸였던 안타까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 진다.

이 땅에서 독재를 물리치고자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쳐 투쟁했던 4월혁명과 5·18광주민중화운동을 비롯한 민주개혁운동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우리 역사의 아프지만 자랑스런 부분이다. 아울러 이 땅에 평화와 민족화합의 시금석이 되었던 6·15, 10·4남북공동선언은 그 정신을 훼손 없이 계승해야 할 우리의 실천과제이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새 정치를 표방하는 민주정당이라고 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소모적인 이념논쟁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구차하고 저열한 발언으로 그러한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소식을 접하고는 눈과 귀를 의심했다. 목숨 걸고 싸워왔던 많은 민주인사들의 희생은 어찌라고 다만 ‘소모적인 이념논쟁’이라고 말하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과 기득권 세력의 이익창출만이 삶의 목적인 이 땅의 친일·반민주·보수극우세력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알고 매번 아무렇지도 않게 기존의 약속을 뒤집는 기득권유지의 거짓말 정당이냐 그렇다고 쳐도 독재와 타협 없이 국민을 위해 투쟁해 온 민주정당의 혈통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두고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결국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24시간 넘게 뉴스에 도배가 되도록 침묵을 지켰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결국 그들도 똑같은 정치인이었구나 하는 아쉬운 마음에 이유 없는 서글픔으로 가슴이 답답해진다.

한 번 맺은 약속이라면 그것이 비록 나를 아프게 하고 조금은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신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 보통사람의 도리이다. 개인끼리도 그러한데 국민과의 약속이라면 어떻겠는가? 구차한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려 하지 말고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미래의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정치인을 만나고 싶다.

(2014.03.21.)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 된 한미일군사동맹과 미사일방어체제 편입기도를 규탄한다.

한상진(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이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발표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북한 핵을 빌미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군사동맹과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을 적극 반대한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본질은 중국봉쇄를 통한 동북아시아 패권유지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한일관계 개선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지원협정(ACSA)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정의 매개가 되는 것이 미사일방어체제(MD)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자신들의 헌법마저 부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밀어붙이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도 한미일삼각군사동맹 체제 구축을 노리는 미국의 부추김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일군사협정의 체결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한미일삼각군사동맹체제의 구축은 그 1차적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정치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군비경쟁 및 대결의 격화를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의 평화 위협은 민족 분단과 대결 체제, 그 속에서 누적되고 반복되는 상호 극단적 불신이 70년 가까이 지속되는 데에 그 본질적 문제가 있다. 그러하기에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와 대결을 격화시키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실현을 이룰 수 없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오로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평화협정 체결임을 밝힌다. 또한 이를 위한 6자회담과 각당사국들의 대화가 조건 없이 시작되어야한다.

3년 4개월간 중단되었던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으로 모처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가 싶더니 다시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 겨울의 한복판에 서있는 심정으로 다시금 봄을 맞이하기 위한 평화실현과 통일에 길에 다시금 전 민족의 발걸음이 필요하다.

(2014.03.28.)

남북관계도 봄날처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는 없을까

이종섭(6.15경기본부 홍보위원)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가 겨우내 헐벗었던 자연을 곱게 물들여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여유를 선물하기도 하는 완연한 봄이다. 3월 말부터 4월 초에 이렇게 활짝 핀 봄꽃들의 향연이 몇 년만이라거나 예상외로 일찍 피어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가 당황했다는 소식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할 정도로 꽃길을 보거나 걷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 여유롭다.

안타깝게 시선을 돌려 언론에 눈과 귀를 기울여보면 어둡기 그지없다. 북쪽에서의 미사일 발사와 남에서의 대응사격, 최근 무인정찰비행기 소식까지 여전히 분단된 우리 나라에서는 긴장이 예고없이 벌어지고 있다.

60년이 넘는 정전상태에서는 어느 한 순간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칫 불꽃 하나가 전쟁의 참화를 만들 수 있는 ‘정전’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60년을 이어오면서 다소 무감해진 느낌도 없지 않다. 남북이 갈라져있다 하더라도 서로의 상황과 의도는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외치고, ‘통일준비위’를 만들고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것을 밝히며 통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왜 상대방인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을 발사하며 호응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

대화와 소통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때 가능하다. 한쪽에서는 남북 교류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5.24 조치 해제, 평화체제 논의를 전제로 한 6자회담 재개, 남북간 기존 합의의 존중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외침일 뿐이다.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 등 남북의 정상들이 약속한 선언이 있었지만 이것을 존중하고 지킬 노력 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밝히면 나아질 길이 있을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얘기는 좋다. 그렇지만 서로의 마음을 좀더 헤아려보는 것은 안될까?

한미는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21년만에 최대 연합상륙훈련(쌍용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미사일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상황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통일 의지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 국정원의 간첩조작 문제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대박’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를 갖는 것도 일방통행식의 발표와 대책에서 나온다.

‘1번’ 어뢰에 대한 논란이 채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무인정찰기가 선거를 앞두고 등장하면서 자칫 남북간 긴장 상태를 ‘서로 너 때문이야’라고 돌리면서 한쪽에서는 미국과 함께 북한 급변 사태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 훈련 등을 강화하고, 한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시선을 60년이 넘는 정전협정으로 돌려보자. 세계 최장기 정전협정의 폐해를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해결하려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남북의 이익이 지구촌 전체 구성원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201404.03.)

신뢰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박영락(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정수는 왕따다. 아무도 정수와 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깔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정수는 절대 딱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수를 왕따 시키는데 앞장서 왔던 철이가 정수를 찾아와서 절대딱지를 내놓으면 더 이상 왕따 시키지 않겠다고 제안을 한다. 절대딱지를 포기하고 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절대딱지를 지키고 계속 왕따로 남을 것인가? 정수는 머리가 아프다. 만약 철이가 약속을 지킨다면 절대딱지를 포기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한 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철이가 지금껏 약속을 지킨 적이 별로 없다는 거다. 정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통일 대박론을 소리 높여 외치던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또 하나의 거창한 제안을 내놓았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것, 남북 공동 인프라를 구축할 것,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한 것이다. 참 좋은 제안이다. 이번 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 되고 통신과 교통 등 기간산업에 있어서 공동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면, 또 남북 협력사무소가 신설되고 평화지대가 설치될 수만 있다면 이거야 말로 화해와 통일을 향한 아름다운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기에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알고 보니 제안이 아니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 투항 하면 먹고 살게 해 주겠다고 하는 엽포일 뿐인 것이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전무한 현실에서 이런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도 또한 명확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하자면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자기들은 미국의 최첨단 위성을 이용해서 북한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면서 골동품 무인기 몇 개 가지고 미사일이나 핵에 버금가는 엄청난 위협이라도 당한 듯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핵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은 골동품 무인기 가지고 호들갑 떨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때이다. 핵의 전면적인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북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를 해제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고 민간차원의 만남과 소통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신뢰의 다리를 새롭게 놓아야 한다. 진정한 신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2014.04.10.)

세월호와 다를바 없는 대한민국호,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나라인가?

노세극 (615 경기본부 홍보위원)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로 온 국민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즐거운 수학 여행길이 황천길이 되고 말았으니 특히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은 학생들의 부모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그 비통하고 참담하고 피눈물 나는 심경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랴? 안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한 다리 건너면 알게 되는 단원고 학생 가족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전해 듣고 가슴이 아렸다. 너무 눈물을 흘려서일까? 이제 슬픔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름을 억누를 수 없다.

왜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왜 6,825톤이나 되는 대형 여객선이 맥없이 뒤집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난걸까? 왜 선장과 승무원들은 승객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내 몰라라 팽개치고 저들만 살겠다고 탈출한걸까? 왜 회사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는가? 921명이나 태울 수 있는 그 커다란 배의 승무원의 70%가 왜 비정규직이어야 하는 걸까? 그러고도 그들에게 충성심과 사명감을 강요할 수 있는 걸까? 왜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고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1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일까? 왜 일본에서 건조되어 이미 20년이나 사용한 낡은 배를 들여왔으며 그것도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해 증축 개조하여 배의 안전성이 심각히 훼손 되었음에도 이를 허가 해 준걸까? 왜 화물을 한도를 초과하여 과적을 하고 고박도 제대로 하지 않은 걸까? 왜 통상 다니던 기존 항로를 가지 않고 다른 항로를 선택한 걸까? 이미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 이상이 감지되었음에도 목포 등 인근 항구로 피항하지 않고 왜 무리하게 계속 운항한 걸까?

어찌해서 태평양 한가운데도 아니고 섬이 뻗어 바다 보이는 연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사고 당일 이후에는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걸까? 왜 초동대처를 하지 못했으며 골든타임을 낭비했는가? 왜 시신은 잘도 건져 올리면서 며칠만 좀 더 일찍 서둘렀다면 에어포켓 안에 있는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못했는가? 무기를 사는 데는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왜 안전 장비는 이렇게 부실한가? 막강한 해군의 특수부대원들은 왜 초기부터 투입하지 않았는가? 군경이 하지 못하면 민간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야 했는데 왜 그리 하지 못했는가? 왜 다이빙 벨을 만든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를 현장에 데어오지도 못하게 하며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게 하였는가? 별볼일 없는 노동자, 서민들의 자녀가 대부분인 단원고가 아니라 권력층과 갑부들의 자녀가 다니는 강남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도 마찬가지로 모습을 보였을까?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가의 총역량을 투입한 것인가?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수많은 의문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물음이기도 하다.

세월호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이다. 안전 보다 수익을 좇고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에선 이러한 사고는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것이 아닐까? 결국 탐욕이 불러 온 재앙인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기회에 국가의 존재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너무도 무능력한 국가 시스템.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지만 안전은 폼으로 달고 있는 것인가?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하였다. 범 부처가 모여 있다고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마찬가지였다. 전혀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국가수반인 대통령 역시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 진도 현장까지

달려갔지만 가서 말한 것이 전혀 실행되지 않았고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의전과 보고를 하느라 구조 작업만 3시간 늦추는 피해만 입혔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1차적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닌 것이다.

세월호와 다를 바 없는 대한민국호,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들만 믿고 있다가 몰살당했듯이 대한민국호의 선장과 승무원들을 믿고 있다간 세월호의 비극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병들고 썩은 대한민국. 총체적 개혁과 수술이 필요하다. 이제 정말 분노하고 깨어 있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2014.04.24.)

그들이 영웅입니다

박길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참담하다. 가슴이 미어진다. 미안한 마음이 고통스럽게 온몸을 휩싸고 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뿐이다.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바다 속에서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고(4월 30일 현재), 육지의 끝에서 소식을 기다리는 이들은 아들딸이 주검으로나마 돌아온 것을 고마워하는 일이, 내 아들딸이 죽어서 돌아온 것이 아직도 '실종'인 아들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미안한 그 일이, 21세기 백주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화창하고 햇살이 눈부시면 화창한 하늘, 눈부신 햇살이어서, 눈물이 나고 다시 가슴이 아프기 그지없다.

해운사나 선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와 해경 등에 대한 분노는, 왜 그토록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무참한 죽음을 자초했느냐 하는, 죽은 자들을 향하는 안타까움에 대한 반대급부의 표현일 게다. 그 안타까움이 어찌 밖으로만 향하는 분노로만 표현될 것이겠는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발등을 내려찍는 심정으로, 쏟아내는 자기 정화를 위한 다짐의 분노가 아니겠는가?

아니, 우리들의 분노는 아직 시작할 때가 아니지 않은가? 날마다 (불합리한)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 하나하나가 한 줄로 서서 오직 구조만을 기다리던 그들을 배반하고 사지로 내몰아 간 것이 분명한 그 언어도단의 행태들이 밝혀지고 있으니, 그 모든 진상이 규명된 이후에 비로소 분노하고, 비로소 책임자 처벌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터. 지금은 오직,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의 '귀환'을 염원하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살아 있는 이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부질없는 것인 줄 알지만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말은 지금 여기 여전히 살아가야 할 우리를 위한 위안의 말이기 때문이다. '모두 돌아온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은 황망한 중에 다만 넋두리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미안한 일인가, 어떻게 잊지 않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치밀하게,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먼 곳으로 돌아간 이들은 원망도 회한도 없이, 한탄도 고통도 없이 평안히 잠들어야 한다. 그러기를 바라고 바랄 뿐이다. 그러나 살아남은 우리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미안함에 값하는 길이며, 그것이 잊지 않는 길이 아니겠는가. 허술한 국가(재난대처)시스템에서부터 알량하기 이를 데 없는 책임자 윤리 수준에 이르기까지,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노라고,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노라고 거들먹거리던 온갖 허위의식을 스스로 까발려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 아니, 우리만 모를 뿐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안타까움 반, 비판 반으로 대한민국의 '수준'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외신들이 차고 넘친다.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믿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자주, '잊어 버려 왔기 때문이다.' 또, 망각하지 않으면 어찌겠는가?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태에 즈음하여 온 국민이 보여주는 눈물과 참회의 고통은 참으로 고맙고 나 역시 눈물겨우며, 신뢰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그 마음뿐이다. 모두가 내 아들딸이라고, 그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딱 그 심정으로 조문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아파한다. 바로 그 마음을 어떻게 사회화하고 제도화하고 정치화하고 철학화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그 공감의 심성을 어떻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삶의 기준으로 현현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에 대하여 정직하게, 어떠한 허위의식도 배제하고, 맨몸으로 마주해야 한다.

주검으로 이미 돌아온 이들도, 바다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는 이들도, 그들은 이미 영웅이다. 그

들은 ‘질서’를 지켰고, 기다리라는 ‘지시’를 따랐으며, 서로를 의지하며 엄마 아빠와 우리들이 오기를 끝
끝내 기다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영웅들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 있으며 그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영원히 모시고, 기필코 아름다운 통일 세상으로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기원하는 것이다.

(2014.04.30.)

‘통일대박’의 환상에서 깨어나자

문영희(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거대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3백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온 나라가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던 지난 4월 25일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일본을 거쳐 서울을 찾았다. 그의 방문은 상중이라 국민적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친미적인 보수언론조차 그의 언행에 충분한 지면을 할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와 대통령 박근혜는 향후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몇 가지 합의도 있었다.

그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크게 보아 남한에 ‘중국포위기지’를 구축하는 일이며, 이는 진작부터 공개된 사실이다. 미국은 여기에 일본까지 끌어드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부영 고문을 비롯, 여야 정치인과 종교인 등 16명은 오바마의 구상이 한반도의 명운을 결정지를 재난의 시작이라고 보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약칭 국민통합회의)’를 조직, 오바마 방한 사흘 전인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하여 오바마에게 경고의 뜻을 보냈다. 그 성명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된다(통일뉴스).

"무엇보다도 최근 한. 미. 일 3각 군사협력 추진으로 동북아에 해양과 대륙 양 세력 간 대결이 조장되고 있는 추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바탕으로 한 한. 미. 일 3각 군사협력 추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올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한. 미. 일 군사 협력이 동북아 공동의 번영, 특히 한국의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인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 분단체제가 구조화되고 우리의 통일은 멀어져 갈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사적 신뢰구축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주변국들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 성명은 이어 △침략 역사 반성 없는 일본의 재무장 규탄,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한반도와 동북아 위협 행위 반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강화 우려 등을 표명했다.

중·미 G2의 틈바구니에 있어온 박근혜 정부는 이제 양자 중 어느 한편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날로 성장하고 미국은 날로 쇠락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구매력평가(PPP)로 환산한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세계 경제 규모 순위에서 왕좌가 바뀌는 것은 1872년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지 142년 만의 일이다. 금융위기 이래 더 뚜렷해진 달러 패권의 약화와 더불어 미국이 1세기 넘게 지켜온 세계 경제 패권을 뒤흔드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한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무제한 발권으로 지탱하고 있다. 너무 돈을 많이 풀어 물가인상 압력이 커지자 양적완화축소라는 카드를 쓰고 있다. 강소국들은 비웃고 있다. 한국 같은 친미정권이 아닌 나라에서는 슬슬 미국과 거리를 두려 한다. 해가 질 때는 잠시 아름답지만 곧 어둠이 오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통일대박’이라는 다분히 선동적인 용어를 꺼냄으로써 통일문제를 들연 국정 의 중대목표로 끌어올렸다. 역대 우파정권 대통령이 늘 썼던 수법이다. ‘통일대박’에는 북한이 없다. 북한은 ‘터무니없는 말장난’이라고 비하한다. 통일대박 정책은 미국의 양해 아래 추진될 것이지만 미국은 인민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히려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에서 보듯 북한의 붕괴를 기다릴 뿐이다.

국내의 일부 민중은 미국이라면 무조건 믿고, 남한의 우파정권을 맹신한다. 그런데 미국과 우파정권은 통일문제를 인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전쟁유발의 요인이 될 위험성이 따른다. 잘못 다루면 세월호가 침몰하듯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수도 있다. 전쟁이 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부터 120년 전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있었듯이.

전쟁 나면 먼저 도망갈 사람은 이 땅의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없는 자’들에게 저항하라고 말할 것이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이 그랬다. 이때는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는 자만 죽게 된다. 또 미국이란 나라는 전쟁을 치르다 불리하면 떠난다. 미국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이것이 미국과 우파정권이 내세우는 ‘통일대박론’의 이면이다. 통일대박이 통일쪽박이 될 수 있다. 환상에서 깨어나야 산다.

(2014.05.8.)

고노 담화 부정!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일본 아베 정권 규탄한다!

한상진(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일본 아베 정권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아베 정부가 오늘(6월 20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 담화(1993년)를 사실상 부정하는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아베 정권의 식민지 침략 부인,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과거사 왜곡 등 일련의 도발이 단지 과거의 문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문제이기에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다.

고노 담화의 부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자,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 부활로 재침략의 길을 가려는 아베 정권의 제국주의적 본성의 발로다.

아베 정권이 발표한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에는 고노 담화가 일본의 자발적 입장이 아니라 "담화 발표에 한국 정부가 깊이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고노 담화의 자발성을 부인함으로써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역사적 책임을 덮어보려는 아베 정권의 치졸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고노 담화가 발표된 이후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일본 법원은 이미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네덜란드 여성을 강제로 위안부로 만든 '스마랑 사건' 재판 기록과 중국 구이린(桂林)의 강제 연행 사건을 다룬 극동국제군사재판(일명 도쿄재판) 판결이 그것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중국 지린성 기록보관서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입증하는 자료 57건을 공표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일본군이 자체 예산으로 직접 '위안부'를 '구매' 했다는 내용, 조선인 출신 '위안부' 20명이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잡혀 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위안부' 강제 동원에 관한 증거가 판결과 기록으로 명명백백한데도 고노 담화를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것은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군국주의와 침략의 길로 회귀하려는 제국주의적 본성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베 정권은 일본의 후대들이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는 제2의 고노 담화를 발표하는 역사적 참담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을 군사대국화와 재침략으로 이끄는 예인선과 같다.

헌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일본의 각의 결정이 초입기에 들어갔다. 각의 결정문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각의 결정문은 가정에 토대한 불법적 문안에 불과하다. 집단자위권은 적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시기 중국 소련 등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일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무력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더구나 미국이 선제공격하지 않는 한 미국

이나 미군기지나 함정 등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도 일본이 미국이나 미군 함정 등에 대한 제3국의 공격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일본 자위대가 분쟁에 개입하고 재침략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일 뿐,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제한한 유엔헌장 51조를 위반한 것이다. 미국이나 미군기지, 미군 함정에 대한 무력공격이 현실화되어 미국이 일본에 집단자위권 행사를 요구하게 되더라도 일본이 미국과 지리적으로나 기타 존립을 위협받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집단자위권 행사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비현실적 가정에 토대한 불법적인 것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첫 대상이 한반도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재앙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발판삼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근본에서 뒤흔들고 전략과 전력에서 냉전체제를 능가하는 동북아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외면하고 불법적인 집단자위권 행사와 군국주의의 길로 나아가려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아베 정권은 지금 당장 군국주의 부활의 폭주를 멈추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외 모든 평화애호세력들은 힘을 모아 아베 정권의 과거사 왜곡, 집단자위권 행사,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파탄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

(2014.06.20.)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수산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불교의 계율은 사실 출가 수행자들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화합을 깨뜨리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고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는 ‘살생하지 마라.’라는 항목이며 계속해서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삿된 음행(쾌락을 추구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관계)을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의 다섯 가지가 바로 불교의 오계이다.

오늘날 일반 신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은 오계 내지는 십계가 보통이지만 스님들에 있어서는 250여 가지가 넘는 많은 항목들이 전해지고 있다.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로 성직자라면 계율이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위대한 속박’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여러 경전에서 석가모니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언젠가 어느 제자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걱정스런 도반들이 용한 의사에게 보이니 어느 특정 고기를 먹는다면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나올 수 있다는 말에 도반들이 그 고기를 구해 먹이고자 하였지만 정작 본인은 거절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을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치게 되는 것으로 ‘살생하지 마라.’는 계율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도반들이 석가모니에게 사실을 알리자 오히려 석가모니는 그 제자를 찾아가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고기를 먹고 건강을 회복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수행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다른 중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출가수행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다.

불교의 계율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단지 글자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 항목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헤아리고 실천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흠치지 마라.’라는 항목을 잘 지키는 것은 다만 내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차지하지 않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프고 힘들어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때로는 내가 아프고 손해 보더라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진실된 말을 용기 있게 내뱉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도 거짓말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교의 계율이 이러한데 사회에서의 법률은 다를까? 같은 ‘살인’일지라도 과실인가 고의인가에 따라 형량에 차이를 두는 것을 법률에 있어서의 융통성으로 이해한다면 과연 잘못일까? 지난 몇 달 동안 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 각료의 인사문제를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잇는다. 대승 불교에서 중요한 수행법 가운데 하나로 고통 등을 참는 수행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그야말로 인욕바라밀을 닦는 시간에 다름이 없었다.

등장부터 퇴장까지 온갖 역겨운 코미디로 우리를 짜증나게 했던 어느 후보자는 법과 원칙을 교묘히 자기중심으로 왜곡하여 국민을 우롱하였다. 연봉이 9천만 원이 넘었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온갖 비리에도 모자라 봉급이 적어 노후 자금으로 사교육 업체의 주식에 투자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북풍 공작과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을 이 나라의 정보기관 수장으로 앉히려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아마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압권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총리될 사람이 없으니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낮추어야 한다는 정신 나간 관료의 헛소리다. 이참에 공직자 후보에 대한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정치인을 보며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여기는 법과 상식을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하려는 뻔뻔함에 그저 나라가 걱정이다.

종교인으로써 내부에서 하는 말은 사회와 별개라는 흑세무민의 극치를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걱정스

럽다. 나는 스님이지만 한 번도 사찰 안과 밖에서의 언행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직자들도 동의한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들에게도 불편함과 아픔을 주지 말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상식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직자들의 언행이요 그것이 바로 계율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다.

이젠 소통까지 바라는 것은 사치인 것 같다. 그저 상식을 벗어나지만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럼에도 그들은 달이 아닌 손가락만 보겠지만.

(2014.06.26.)

반성 없는 일본은 정상국가가 될 수 없다.

안영욱(6.15경기본부 홍보위원)

7월 1일 일본의 아베총리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헌법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니 해석의 변경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정말 기상천외한 꼼수를 부렸다.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에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힌 독일과 일본은 전범 국가이면서 패전국이기 때문에 연합국의 명령으로 군대는 가질 수 없고 오직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장력만 갖도록 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도 없고 다른 국가와의 교전도 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일본의 평화헌법이다.

그러면 아베 정부는 왜 이런 기상천외한 꼼수를 쓰면서까지 집단적 자위권을 쓰고 싶어 하는가 ?

그것은 군사력의 사용을 단순히 자국 방어 수단에 머물지 않고 대외팽창의 적극적 수단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대국의 반열에 있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정치, 군사적으로도 경제에 걸맞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며 유엔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아베 정권이 이야기 하는 보통국가론이다.

보통국가, 다시 말해서 군대를 가진 정상적인 국가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나치 범죄에 영원한 책임이 있다”면서 2013년 8월 20일 최초의 나치 강제수용소였던 뮌헨 인근 다하우 추모관을 방문하여 진정한 참회를 하였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는 전범자가 묻혀있는 야스쿠니를 신사참배하기에 바빴다. 독일은 지금도 나치 전범자를 찾아 재판에 넘기고 있지만 일본군은 전범자를 추모하면서 한국의 위안부는 강제성은 없었고 자발적 참여라고 호도하고 있다. 진정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독일의 모습에 비해 일본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일본은 지금도 우리나라와는 영유권 문제,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한 것이 하나도 없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영토분쟁, 과거사 문제로 동아시아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일본의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는 것이다. 일본이 진실로 보통국가,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보통국가, 정상국가의 모습이다.

반성의 기초 우에 화해와 협력이 있고 평화가 지속되는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무력을 쓰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행동이다.

그리고 미국은 진정 일본을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과와 반성을 하라고 촉구를 해야 한다.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임한다면 말이다. 또한 미국이 이야기 하는 동북아의 평화는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반성과 동북아 여러 나라들의 대화와 협력에서 나온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한국에 가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단지 외교부의 항의 기자회견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강력하게 행동적인 모습까지 고려하면서 일본에 항의를 해야 한다. 구한말 시절 자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던 어리석은 행동은 또 해서는 안 된다.

(2014.07.04.)

종북 논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종섭(6.15경기본부 홍보위원)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에서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도 보낸다는 소식에 잠깐 언론의 열기가 뜨거웠다. 남북의 만남, 하나되는 응원의 열기보다 외모 위주의 선정적인 보도가 많이 등장했지만 9년 만에 남북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함께 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때로는 남북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언제 전쟁의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분단 60년을 넘어선 우리가 겪어야 할 운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운명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분단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상처와 장애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진다는 데에 있다. 여전히 일부의 사람들에게서는 ‘종북’과 ‘빨갱이’는 유효하고 효과적인 무기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곧 ‘틀린’ 생각이 되어 버리고,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는 생각이 되어 버린다.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도 ‘다른 생각’과의 소통과 공존, 토론을 통한 발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사인 입장에서도 이것은 크게 다가온다.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한 마디,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 현대적인 가치, 삶의 방식 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와 민원, 협박을 들어본 경험이 한 두 번이라도 있는 교사라면 내 스스로의 말과 글에 대해 먼저 머리에서 검열을 하게 된다. ‘정치 중립적’이라는 가치는 어찌보면 역설적이게도 문학의 배경을 거세한 가르침이나 반대로 보수적인 입장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화하게 된다.

사회도 다르지 않다. 일단 ‘종북’,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그것에서 헤어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선거에서도 여전히 많이 쓰여왔고, 심지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유족들의 주장,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종북’을 굴레는 덮어씌워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종북 굴레의 중심에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있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진보당 당원들의 강연 녹취로부터 시작한 이른바 내란음모 조작사건이다. 얼마 전 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의 내란음모 여부를 판단하는 2심 재판 중에 증인으로 나선 한 역사학자는 제헌입법이 얼마나 급진이었는지, 이 사건이 왜, 어떻게 정치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강연에 대해서도 귀에 걸어 ‘종북’이라 규정하고, 더 나아가 ‘내란’을 준비했다는 것으로 정당해산이라는 거대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2014년의 현실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종북 논쟁은 실로 무서운 반통일·분단 이데올로기이고, 남북관계에는 북핵 문제보다 더 강력한 족쇄다.(2014.07.07. 한겨레신문 칼럼)”라고 밝히고 있다. 남과 북이 만나고, 역설적이게도 적대적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맺어진 72년 7.4남북공동성명,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을 지켜가는 것이 종북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걷어치워야 한다. 언제까지 서로를 적대시하고, 우리 안에서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고, 상대의 머릿속 생각마저 끄집어내서 판단하려고 하는 시대를 연장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주장도 ‘종북’, ‘빨갱이’라는 욕을 먹지 않고 자유롭게 사회 속에서 소통되고, 건강하게 토론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듯 종북 논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단 한 발짝도 역사와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기에는 넘어야 할 큰 장애물과 현실을 보여주는 징표가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과 8월 11일 선고되는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관한 2심 판결’이다.

8월부터 시작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고 ‘종북’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가 시대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무쪼록 7~9월 종북 논리를 극복하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길 기대해본다.

(2014.07.19.)

차별과 억압은 정의가 아니다.

범상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실험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한다.

TV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화나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좋은 사람은 잘생기고 예쁜 외모를 가진 반면 나쁜 사람은 험상궂거나 못생기게 표현 한다. 그리고 낮은 사람일지라도 무거운 짐을 들었거나 길을 묻는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아이들은 외모를 기준으로 선인(善人)과 악인(惡人)판단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나선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심리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과연 드라마나 영화 같은 픽션을 제외하고 실제로 범죄형 얼굴이 따로 있을까? 적어도 수년간 교도소법회에 나가 있는 필자의 경험에는 범죄형 얼굴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도를 오래하면 얼굴이 맑아진 다거나, ‘신수가 흰하다’는 말처럼 마음상태에 따라 조금은 달라 질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외모와 범죄는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대부분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거의 습관적으로 너는 장차 대통령이 되어라, 국회의원이 되어라, 교수가 되어라, 장군이 되어라, 판검사가 되어라 등등으로 가르쳤고, 우리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왔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교육덕분에 한국인들의 무의식은 출세를 꿈꾼다. 그래서 청문회 등에서 밝혀지는 파렴치한 행동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지만 그 시간만 모면하면 민중은 언제나 관대하여 잊어버리고, 그들은 언제나 당당하며 국민의 심판이라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기염을 토한다.

여기에 민주화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차별과 억압의 전통문화는 유사 신분관계를 만들었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도령과 성춘향을 패러디한 보험사 광고에 “너희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한 자 들이냐”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광고는 신분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사회는 아무런 비판 없이 통용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눈치 채지 못한 독자들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가족동반 모임에서 사장아들과 직원아들은 “사장님 아드님”과 “내 자식 놈”으로 엄격히 구분된다. 다시 말하면 사장과 직원은 직업상의 관계 일뿐 신분의 차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하인 사이에나 있을 법한 언어체계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은 공권력을 사사로운 사랑에 남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세를 꿈꾸는 한국인들은 “암행어사출도여~”라는 대목에서 속이 후련함을 느낀다. 이처럼 출세 만하게 되면 그 권력으로 애인을 구하든, 법을 어기든,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든, 아랫것들은 알바가 아니며, 그것을 동경하는 민중들은 윗사람이 하시는 일이므로 따지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은 물론 자녀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좌빨척결”을 입에 달고 산다. 그것도 모자라서 일제식민지와 미국의 간접지배는 산업(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칭송하는 반면, 내 민족 내 형제를 향해서는 우리 손으로 때려잡자고 가르친다.

이처럼 무엇을 해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옳고 정의로운 것으로 통용되는 사회는 통일은커녕 사랑하는 자식의 미래조차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차별과 억압이 옳고, 예의바름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4.07.14)

세월호 정국과 이순신의 리더십

노세극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영화 ‘명량’을 보았다.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린 한 인간의 고뇌와 죽음을 불사한 용기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너무도 잘 아는 스토리지만 오늘의 상황과 대별되어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영화가 폭발적으로 흥행하는 데는 시대 상황과 오버랩되었기 때문이리라. 절체절명의 순간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即生, 必生即死)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순신! 그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는 군인으로서 뛰어난 전략가이지만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한 인간이었다. 그 시대 백성의 고난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망국에 처한 상황을 돌파하고자 밤잠을 설치고 식은 땀을 흘리며 치열하게 정진하였다. 그 결과가 명량에서 압도적인 숫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역전시킨 위대한 승리로 나타났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순신과 같은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선출직 공직자인 정치인들은 국민의 고통과 함께 하며 자신의 한 몸을 바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청와대나 여의도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눈을 씻고 봐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엇그제 여야 원내 대표 간에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는 그간 유가족들과 국민 대다수가 요구한 특별법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 것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자고 한 것임에도 여야 간에 사실상 진상의 은폐를 도와주는 법을 만들자고 한 것이다. 새누리당이야 애초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우군이라고 믿었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기만과 배신을 당한 꼴이다.

세월호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탐욕과 비리에 물들어 있는지, 국가는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건지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런 대형참사가 나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뀌고 거듭날 줄 알았다. 그러나 말만 요란했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으며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이 일관되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왜 이런 대형참사가 일어났는지, 왜 구조를 한명도 하지 못했는지, 국정원은 왜 개입했는지 등등 수많은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억울하게 죽어간 넋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두려운지 진상과 진실을 규명하자는데 집요하게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아마도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책임지게 될 사람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8월 9일 어제 안산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가 공동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했다. 바로 전날 전격적으로 여야 간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알려지자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인지 유가족들과 시민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장문의 기자회견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은 국민과 유가족들의 염원을 짓밟은 것으로 이를 규탄하며 모든 합의 내용을 폐기하고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회견이 끝나고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항의 방문하고 서한을 전달하고 시의회 의장실도 찾아가 성명서나 결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거기서 우리는 이번 여야 간에 합의는 예견된 것이며 7.30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이 새정치 민주연합을 지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투의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병병하였다. 야당이 참패한 것은 야성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럴수록 반성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대야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민이 지지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의 확실한 2중대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

세월호와 함께 하는 세월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다. 세월호를 딛고 가지 않으면 우린 한발짝도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없다. 마냥 분노의 세월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망각의 세월을 살 것인가? 이 세월호 정국 속에서 여야 두 거대 정당이 국민과 유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직접 정치의 무대로 나설 수밖에 없다. 명량에서 보여주었던 이순신의 용기와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순신의 리더십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능히 이 정국을 타개해 나가는 힘도 점점 커질 것이다.

(2014.08.08.)

아직도 무엇이 두려운가?

문영희(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이번 8월 15일은 한반도가 일제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69년이 되는 날이다. 해방이 될 당시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인민이 살고 있었다. 일제의 멸망을 위해 투쟁하던 독립운동세력, 해방이 좋긴 하지만 나는 덕 볼 것 없다는 평범한 민중, 일제의 멸망으로 패가망신의 위기에 놓였던 친일세력. 이들 모두 선대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한반도의 주인공들이다. 남한 땅에는 일본 대신 승전국인 미국이 들어왔다. 미국은 군정기간 독립운동세력을 멀리 하고 친일세력을 가까이 썼다. 국가적 불운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지난 세월 내내 가장 고생한 세력은 민중이었다. 새 나라를 세우는 데도 아무런 불평 없이 협조했고, 전쟁이 났을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 민주주의가 죽어갈 때 또한 목숨 내놓고 집권부패세력을 물리쳤다. 4.19혁명, 광주민주항쟁, 6월민중항쟁은 다 이들의 공이다. 늘 먼발치로 바라만 보던 미국은 민중 항쟁이 성공하면 “한국은 미국의 원조정책이 성공한 국가다. 6.25때 미국시민이 흘린 피의 대가”라며 이를 환영했다.

박정희 18년 장기집권 동안 독립운동세력과 민중은 결합하여 민주화세력이 되었고, 친일세력과 친미세력은 산업화의 깃발 아래 동맹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장악하게 된다. 민주화세력은 김대중과 노무현 같은 탁월한 지도자 덕택에 10년 간 정권을 담당할 적도 있었으나 미국에게는 늘 ‘눈엣 가시’같은 존재였다. 그들이 미국 주류의 눈 밖에 난 것은 그들의 ‘작은 악마’인 북한을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대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는 말하지 않고, 평화공존만을 말하는 것을 그들은 싫어한다.

남한의 경제가 단기간에 급성장한 것은 미국의 도움과 선량한 노동자들이 희생한 결과이다. 그런데 그 과실을 산업화세력이 독식하고 만 것이다. 그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사이 나타난 현상이 무신(無信), 무치(無恥), 그리고 무통(無痛)현상이다. 망국적인 삼무의 시대가 온 것이다. 첫째 무신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없다는 뜻이다. 세월호 참사로 무신평조는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5개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너무 많이 잃은 것이다. 진실을 숨기기 때문이다. 정부의 말에는 어느 것 하나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 참사에는 이상한 데가 한 둘이 아니다. 음모의 냄새가 난다는 말이다.

둘째 무치현상은 이 나라 집권세력에게는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무치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다. 수치심은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고 참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수치심이 없다. 우수한 두뇌들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그것은 미국에서 실용주의를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실용주의를 ‘내 실속만 챙기면 그만’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동물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셋째로 무통현상이다. 남의 불행, 이웃의 불행을 아파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북한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입으로는 북한의 가난을 걱정하는 척 한다. 그러나 도와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대화를 하자면서도 북의 양보만을 요구한다. 오히려 망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개하는 한미합동훈련은 잘 하는 것이고, 북한이 불안해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만 본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에 사즉생의 각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해방 후 5년 만에 우리는 남북전쟁을 겪었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휴전상태가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는 8·15 해방이 일본이 물러갔을 뿐인 미완의 상태라는 뜻이다. 국방은 미국 의존형이고, 경제 또한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두 강대국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삼무 현상은 나라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때 죽어나는 것은 민중뿐이다. 민중에게는 아직 진정한 해방이 오지 않은 탓이다. 그럼에도 민중은 침묵하고 있다. 침묵은 최악이다. 제2의 해방을 위해서는 민중이 침묵을 깨고 행동해야 한다. 세월호로 희생당한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에게 외치는 호소이다. 두려운 것은 나의 무관심이지 권력자의 총칼이 결코 아니다.

(2014.08.14.)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박길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프란치스코 교황의 덕화가 온 나라를 뒤덮은 지 일주일이지났다. 교황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나는 날까지 온 나라의 눈과 귀는 오직 교황의 발걸음을 쫓아가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일관했다. 그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분 단위로 쪼개 쓰는 일정 가운데서도 세월호 사고로 고통 받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위로의 시간이 여러 차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일정을 포함하여, 교황은 가는 곳마다 범상치 않은 어록을 남겼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의 의미는 듣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간절한 기구 속에서 교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귀에 들어오는 말이 다르거나, 같은 말이라도 달리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한국 사회,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원한을 풀고 평화하십시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에 빠져 있음과 관료주의의 노예상태임, 그리고 수십 년 이래의 부패 세력이 그어 놓은 선을 따라 나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이며 적나라한 자화상이었다. 그럼에도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와 여당은 거만하게 굴며 지리멸렬한 야당을 고양이 쥐 다루듯 하고, 물러설 곳 없는 유족들과 양심적인 시민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는 곳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백주 대낮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한 ‘아빠’의 목숨을 건 단식이 그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수십 일째 이어지고 있다(2014년 8월 21일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정좌단식하는 ‘아빠’는 광야를 헤매는 예수님이자 보리수 아래 가부좌를 튼 부처님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150여 년 전후로 잇따라 이 땅에 후천 개벽의 사상을 설파했던 한국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걸었던 길도 그와 다르지 않다. 그분들은 모두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냈다. 다만, 종교적 성자들은 ‘진리의 대각과 가르침’으로 결실을 맺었다면, 아빠의 정좌단식은 ‘진실과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인간 세상에서의 개벽”으로 결실을 맺게 됨이 다를 뿐이다.

미국사회는 9.11사건(2001)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로 갈린다고 한다. 일본사회는 3.11(2011) 사건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로 갈린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는 4.16(2014) 세월호 사건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로 갈릴 것이라고 한다. 1998년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6.25전쟁 이후의 최고최대의 국난을 겪어야 했지만, 2002년 온 나라를 뒤덮은 붉은 악마의 함성과 역동성을 통해 어떤 고난이든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자부했던 우리의 자존심은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장면과 그 이후의 사태에서 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세월호 사건은 그러한 원점 회귀에 내리는 가혹한 경고요, 이마저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조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변화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일 수밖에 없다.

지금 광화문 광장 ‘아빠’의 옆에는 수많은 엄마 아빠와 아들딸들이 함께하고 있다. 동조 단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공간에 당장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 있는 인간’의 마음은 모두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이다. 진실과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다. 물러설 수도, 우회할 수도 없는 길이다.

물론 단식의 중단이 ‘물러섬’을 의미한다는 말은 아니다. 단식은 스스로에게 다지는 약속이자 각오이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궁극의 목표는 ‘진실과 사랑과 정의’ 그 자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목표를 향한 길이 열릴 때에야, 우리의 신념이 그 ‘아빠’에게 확신으로 다가갈 때에 비로소

‘아빠’의 단식은 중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이 열리고, 세월호의 그 의인들도 모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노래는 지금 이 시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가 된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2014.08.21.)

세상은 마음의 거울이다

수산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우리에게 늘 궁금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옛 분들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인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苦海)’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듯이, 구약성서 욥기에서도 ‘인생은 땅위에서 고역이요, 그의 인생에는 품꾼의 나날 같지 않은가’라는 말씀이 있다. 아마도 그것은 인생을 긍정보다는 부정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는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인생 자체가 원래 괴로움과 즐거움 그리고 선악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구별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인생이란 단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며, 그 두 가지를 지양하고 종합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커다란 슬픔도 커다란 기쁨을 불러올 것이며, 또 깊은 슬픔은 깊은 기쁨으로 통하고 있다. 자기의 할 일을 발견하고 자기의 하는 일에 신념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사람의 가치는 물론 진리를 척도로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보다도 그 진리는 찾기 위해서 맞본 고난에 의해서 개량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불교의 『대승기신론』이란 경전에서 “세상의 온갖 경계가 다 중생의 무명[無明; 근본번뇌]에서 나오는 망령된 마음에 의하여 존속한다. 그러므로 온갖 현상은 거울 속의 영상을 실체라고 인식할 수 없는 것과 같아서 사실은 허망하다. 망령된 마음이 생기면 차별적인 현상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차별적인 현상도 없어지는 까닭이다.”라고 하듯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즐거운 인생, 괴로움 인생의 차별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만 인생 자체는 괴롭거나 즐거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이건 괴로움이건 그것은 실체가 없는 일종의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맑고 깨끗한 유리를 통해서 바깥을 볼 때 우리는 원래의 대상을 제대로 볼 수 있지만, 색깔이나 더러움이 묻은 유리를 통해서 보는 대상은 그만큼 왜곡된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그 왜곡을 일으키는 색깔이나 더러움이 바로 우리의 경험과 주관 그리고 집착과 욕심 등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는 만큼 본다고 하지 않던가. 행복과 불행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 갖아야 할 문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형이상학적인 관념보다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생활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절에 가면 흔히 사르는 향과 초를 무슨 이유로 켜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향과 초는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향기롭게 하고 밝게 비추며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 즉, 자신을 불태워 남에게 이익을 주게 하는 의미가 바로 향과 초를 사르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종교인의 마음자세이어야 할 것이다. 아니,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싶다. 때로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이웃을 위해 모르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끔찍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도 넘었건만 변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 달라는 희생자 유가족과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치졸한 유연비어로 희석시키며 외면하는 현실을 보며 이 안타까움을 어찌 풀길이 없어 가슴 아파다.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분도 계신데 어느 분은 아픔을 가슴에 간직하라 하시니 보는 국민들은 헛갈리기만 하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자식들 앞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육지거리가 연극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이 웃음 지으며 내뱉었던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육두문자보다 비난받아야 하더니, 무학대사가 태조에

게 했던 “임금님은 부처로 보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은 알까? 아는 만큼 보고, 세상은 마음의 거울인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 같다.

자신이 내뱉은 말조차 기억을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위정자는 필요 없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조삼모사(朝三暮四)로 농락당함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그저 선거결과로 치러야 할 업보로만 치부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아프다. 거짓을 말하지 않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실 된 말을 해야 하듯이,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 양심으로 침묵하지 말고 무언가 우리의 가슴을 열어 보이자. 운명이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픔과 불행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큰 소리로 외치자.

(2014.08.28.)

평화의 숨결, 한반도의 미래

박영락 목사(6.15경기본부 홍보위원)

내일이면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한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하면 먼저 만 국기가 떠오른다. 어릴 적, 거리에 나무끼는 형형색색의 세계 각국의 국기를 보면서 세계를 향한 원대한 꿈을 꾸곤 했었다. 그런데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는 거리에서 참가국의 국기를 볼 수가 없게 됐다. 반북단체들이 인공기 게양에 항의하자 아예 모든 국가의 국기를 철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대검찰청 공안부까지 나서서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행위를 할 때,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따라 부르는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해 엄벌에 처할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잔치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는 스스로 밥상을 뒤집어 엮고 깡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어 리석은 정부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실로 얼마 만에 남과 북이 만난 자리인가?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막히고 개성공단은 빠져대고 있으며 남북 대화 마저도 끊겨버린 지금, 제 발로 찾아온 북측 선수단을 이런 식으로 자극해서 얻어지는게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인가?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일 대박론은 평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력 흡수통일의 다른 표현임이 명약관화해졌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의 슬로건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고 한다. 과연 이렇게 편협하고 옹졸한 처사가 평화의 숨결을 불러일으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평화는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부터 참 된 평화의 숨결은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는 창조주이지만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온갖 허물과 한계를 이해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셨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셔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용서를 선언하셨다.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다. 또한 누군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왼 편도 돌려대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십리 뿐 만 아니라 백리까지도 함께 가면서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려 보고 설득해 나갈 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다.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기를 기다려서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다. 인공기 게양에 반대하는 이들을 적으로 여기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저들과 십리를 함께 걸으며 대화하고 설득하고 변화시켜 가야 한다. 북이 먼저 머리 숙이고 항복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저들의 경험과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대승적인 접근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뜨려야 한다. 걸음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제 잇속 차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불의한 권세자들을 훈계하고 교훈하여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들 각자 각자가 불어넣은 평화의 숨결이 모이고 모여서 아름답고 복된 한반도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2014.09.18.)

주한미군의 THAAD(사드)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한상진(6.15경기본부 홍보위원)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용인하겠다고 한다. 전제는 언제나 그렇듯 북한이다. 북한이 중거리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후술하겠지만 대단히 잘못된 전제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 도입을 위해 노동미사일을 새로운 위협인 양 과장,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 궤도를 높여 발사하면 하강 속도가 빨라져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엇-3(이하 PAC-3)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미사일의 궤도를 높여 발사하면 자세제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명중률도 현격하게 떨어지고 탐지와 요격도 쉬어져 그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궤도를 높여 발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령 궤도를 높여 발사하더라도 하강 속도가 크게 빨라지지 않아 PAC-3로도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이나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드의 요격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사드의 요격대상이 될 만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많지 않아 엄청난 배치 비용(보도에 의하면 1개 포대에 2조원의 도입비용과 연간 600억 이상의 운용비가 소요된다.)에 비해 효용성이 매우 낮다.

사실이 이러하든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가?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MD체계와 관련이 있다. 사드의 레이더 체계인 '엑스밴드 레이더(AN/TPY-2)는 그 탐지거리가 1,500km이상으로 상하이, 다롄, 베이징 등 중국 동, 북부 지역에서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과 일본 및 오키나와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미국과 일본에 조기경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드의 요격 체계는 중국 동, 북부 지역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처럼 사드체계를 도입할 경우 한국군이 아닌 주한미군이 운용하더라도 한국은 미국 MD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가 된다. 이는 국방부도 엑스밴드 레이더 설치를 미국 MD의 편입기준으로 제시한 바(2012년 10월28일)와 미국 국방부 캐슬린 히스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의 "레이더 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 MD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드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한-중 관계의 악화를 가져온다. 국방부는 '사드의 제한된 요격 고도를 고려할 때 작전 범위가 한반도 내로 국한돼 주변국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한국 배치 사드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조기경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하고, 중국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일본 및 아태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억지력을 무력화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억지주장이다. 중국도 [신화통신]을 통해 사드배치가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이유가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다.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아시아 - 태평양에서의 유일패권 전략에 국익이 희생당하고 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눈에 뻗히 보이는 미국의 전략에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현실이 이용당하고 있다. 최대교역국이며 향후 정세,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계에 놓일 중국을 등지게 되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눈앞에 마주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 시도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도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재연

기도... 모두 각각의 사안이 아니라 미국의 사드배치와 맥을 같이 하는 미국의 패권정책 미국MD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할 때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는 자주와 실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평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풀어야한다. 사드배치의 표면적 이유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체결로 풀어야 하며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정책과 그로 인한 아시아 각국의 안보불안은 아시아평화공동체 건설을 추구하고 아시아공동안보체제의 수립과 강화로 풀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익을 훼손시키고 한반도와 아시아에 긴장만 고조시키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14.09.26.)

냉탕과 온탕을 오가지만 희망을 놓지 말자

안영욱(6.15경기본부 홍보위원)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다. 북한 선수단을 비롯해 북한 응원단을 보낸다는 북측의 발표에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으나 다른 나라의 경기 크기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북한 인공기 크기를 제한하고 북이 요청하지도 않은 체류비용을 국제 관례대로 주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에 북은 응원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그렇게 희망과 기대는 사라져 갔다.

그런데 10.4선언 발표 7주년이 되는 날이면서 인천 아시안게임의 폐막식날인 10월 4일 북한의 최고위 인사인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방남하였다. 이들의 방남에 청와대 고위인사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등이 맞이해 주었고 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0월 말에 열기로 합의를 함으로서 남북관계에 순풍이 불겠다는 기대를 잔뜩 하였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또 한순간에 무너졌다. 며칠 뒤인 10월 7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남북간에 총격전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경비정 한척이 NLL 이남으로 900M 내려와서 우리 군이 함포 사격을 하였다. 이에 대응해서 북한도 사격을 했지만 함포가 없는 북한의 경비정에서는 기관총 사격은 사거리가 최대 4KM이내이기 때문에 8.8KM 밖에 있는 우리군의 함정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군이 조준 사격으로 북한 경비정을 격파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76mm 주포가 불발되어 북한 경비정이 침몰하지 않았다. 만약 불발되지 않고 포탄이 그대로 날아가 북한 경비정을 격파시켰다면 아마도 북한 해안포에서 포탄이 날아왔을 것이고 이에 우리는 K9으로 대응 사격을 했을 것이다. 그럼 북은 또 장사정포로 대응 사격을 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군은 폭격기와 미사일로 대응 했을 것이다. 서해에서 작은 충돌이 점점 커져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조준 격파 하려는 우리 군의 모습을 보면서 남북 모두가 공멸하는 전쟁을 진정 하고 싶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후 또 얼마 안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일에 맞춰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사를 연천에서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서 북한군은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 사격을 가했고 우리 군은 중기관총으로 대응 사격하였다.

북한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비방 중상하고 체제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당장 중단하라고 남한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우리 정부는 이것은 '표현의 자유'라며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관하거나 용인해주었다고 한다.

그들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 생명이 더 중요하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과 SNS의 상시 검열로 사이버 망명이 대거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라며 탈북단체의 망동을 감싸주는 이중적인 모습은 좀 어처구니없다. 대한민국이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다.

해상과 육상에서의 총격전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은 청와대에 3번의 전통문을 보내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3일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면서 "5.24문제 등을 남북이 만나 진정성 있게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화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41일만에 공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15일에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지만 대화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불안감은 낮아지고 대화의 문틈을 넓어질거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일교차가 큰 10월 냉탕과 온탕을 서너번 왔다갔다 했지만 10월 30일로 제안된 2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잘 되어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하는 남북관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모처럼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길 바란다.

(2014.10.1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 연기와 대북전단 살포에서 평화가 꽃필 수 있을까?

이종섭(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를 했다. 그것도 무기한 연기란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브리핑은 무슨 생각인지를 의심케 한다. “자주국방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더니 이어서 “자주국방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한다. 끊임없이 미국의 군사무기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 수입하고, 군사시스템마저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가면서 자주국방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라고 한다. 아예 전시작전통제권을 받지 않을 생각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해라도 된다. 군사, 정치, 경제 등 여러 면에서 국가를 규정할 때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국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자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으면 그 정당의 본질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라도 할 것이다.

“내란을 음모하지는 않았지만 내란을 선동했다”느니 앞뒤가 통하지 않는 논리를 하도 많이 듣다보니 이제 유행처럼 번져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도대체 학생들은 이런 문맥에서 논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민주시민교육, 철학, 논리를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현실에서 사회와 정치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비춰질 뿐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을 경계하고, 사회적인 이슈를 가르치면 엄벌에 처한다고 교사들을 협박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니 정부가 안쓰럽긴 하지만 이해가 되기도 하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사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한 재연기라는 합의 속에는 향후 수십 조에 달하는 군비 강화 계획이 들어있다. 남과 북이 서로 군비 경쟁을 어쩔 수 없이 지속하는 상황을 만드는 이런 현실은 제로섬게임을 넘어서 마이너스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을 앞두고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이후 고위급회담이 추진되면서 기대했던 남북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다시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다름아닌 탈북자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 몇 번을 지속하고 책임없다, 말릴 수 없다고만 한다. 상대방의 경고는 점차 세지고, 행동으로 옮기겠다고도 했다. 결국 행동으로 옮겼다. 그래도 계속한다. 여전히 내버려둔다.

학생들의 싸움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일단 멈추게 하고, 중재하는 것이 중간에 있는 사람의 도리이자 책임이다. 정부가 하는 변명을 들어보면 아이들만도 못하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이미 헌법에서 규정한 평화통일 추진이나 남북이 약속한 7.4 남북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어긋난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라고, 말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일까.

정부의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이미 여러 사람이 제시해왔다. 더 이상 세월호 참사부터 지속된 “가만히 있으라”라고 주장만 하고, 귀머거리 정부라는 쓴소리를 듣지 말고, 해법을 귀담아 들을 때이다. 4월 16일 이후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가.

결론은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의 언론 기고 글로 대신한다.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은 팬히 나온 말이 아니다. 반복되는 정부의 실책은, 거의 무늬아 수 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세기가 넘는 남북 대립의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들의 해법은 군사적

대치나 거친 심리전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검토가 오래전에 끝난 것이다.

이런 점을 외면한 채 남북 대립과 갈등을 오직 물리적 대결과 격렬 방식의 정책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남북 갈등이 심화되고 군사적 주권을 외국의 손에 넘기고도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이제라도 과거 정권이 북한과 합의한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모든 해법이 다 들어 있다.”

(2014.10.30.)

쪽팔리지 말자!

법상스님(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쪽팔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속된 말로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이다. 그러나 본래 쪽이라는 말은 ‘이 쪽’ ‘저쪽’ 또는 ‘안쪽’ ‘바깥쪽’ ‘위쪽’ ‘아래쪽’ ‘내 쪽’ ‘너 쪽’ 등등과 같이 어느 편을 지칭하며, 개인에 있어서 ‘안쪽’은 마음(생각) ‘바깥쪽’은 얼굴(신체)을 지칭한다.

이 같은 뜻을 가진 ‘쪽’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내 것이 아닌 상태’인 ‘팔리다’가 합쳐진 ‘쪽팔리다’는 자신의 안쪽(마음)과 바깥쪽(행동)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 남에 들켰을 때 임자(자신)의 양심이 마지막으로 느끼는 부끄러움을 말한다.

최봉영은 『한국인에게 나는 누구인가』에서 한국인은 ‘저’로서의 ‘나’와 ‘우리’로서의 ‘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상태인 ‘저’라는 쪽이 상대되는 쪽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되고, 우리가 만물과 하나 될 때 모두가 된다. 모두는 공공(公共)으로서 고루고루 두루두루를 이루는 세상을 아름다운사회라고 한다.

고루고루는 ‘나’라는 범위(우리) 안에서의 조화를 말하고, 두루두루는 모두가 이루어내는 조화를 말한다. 이때 공공은 마치 소리가 공간을 메우고 울리듯이 고루고루와 두루두루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우리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본연의 가치이다. 이처럼 우리⇄모두⇄공공은 ‘저’라는 쪽에서부터 출발하므로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쪽이 팔리면 안 되는 것이다.

앞서 쪽팔림은 ‘임자(자신)의 양심이 마지막으로 느끼는 부끄러움’라고 말했다. 그래서 쪽팔림을 깨닫지 못한 상태 즉, 마지막 양심마저 돈, 권력, 명예 등에 팔게 되면 파렴치(破廉恥)가 된다.*파렴치는 ‘양심이 팔리다’의 한자적 표현(필자 주) 파렴치는 모두에 대해 거짓과 위선, 차별과 억압 등으로 쪽팔림을 감추려하거나 정당화시킴으로서 사회분열과 반목 등의 폐해를 낳는다.

대쪽*갈라져서 다른 쪽이 되었지만 합쳐지면 완벽히 하나가 되는(사리와 행동이 일치했던)같았던 조선선비들이 쪽을 팔아버린 통에 나라가 망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후손들은 식민지를 겪으면서 파렴치한이 되었으며, 현재는 자신들이 자행하는 거짓과 위선, 차별과 억압 등은 민족과 국가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며 권력과 자본력을 동원하여 옳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권위(폭력)를 동반하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쪽팔림에 노출되어있다. 그래서 아름다운권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연유로 아름다운사회를 만드는 일은 언제나 사회구성원들의 몫이다. 다시 말하면 대쪽 같은 권력은 권력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 밝은 백성들이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쪽과 쪽의 관계인 ‘우리’와 ‘모두’를 깊이 통찰했던 선조들은 초야에 묻혀 살면서도 지식인이라는 쪽(역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이번에는 임금이 쪽을 팔 수 없기에 민심을 수용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나라를 빼앗겼을 지언정 마지막 자존심인 쪽팔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객기에 가까운 여유를 부렸던 선조들의 모습은 “중종걸음을 치는 일본인들에 비해 한양거리의 조선인들의 느긋함과 여유는 여느 식민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며 충격에 가까운 서양인들의 고백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식민지가 지속되면서 쪽발림*발림-고깃덩이에서 뼈를 발라내다(외부로부터 자존감을 박탈당함)의 세상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맞서면서 세상에 경종을*단발령에 죽음으로 항거하는 등 울렸다. 그 힘이 수많은 의사, 열사, 투사 등으로 이어졌고 3.1운동에서는 백성들의 기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민지가 지속되면서 쪽팔림에 순응하고, 쪽발림에 무감각해지면서 과거사청산의 기회를 놓친 한국사회는 출세를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혼란스러운 세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4.11.11.)

코스타리카에서 배우자

노세극 (6125 경기본부 홍보위원)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코스타리카 축구가 돌풍을 일으켰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음의 조라고 일컬었던 D조에 속해 있었는데 역대 우승국들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내노라 하는 강팀들인 우루과이 이탈리아, 잉글랜드에 비해 한수 아래로 평가되어 꼴찌를 예상했으나 우루과이 이탈리아를 차례로 꺾은데 이어 잉글랜드와는 무승부를 기록하여 2승1무 조 1위의 성적으로 16강에 올라왔고 이어서 그리스를 이겨 8강 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8강에서 네덜란드에 아쉽게 승부차기로 석패를 하였지만 그간의 경기 내용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중미의 조그만 나라 코스타리카가 축구 역사에 새장을 열었다고 하는 찬사가 이어지고 또 많은 이들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돌풍을 일으킨 한국팀을 연상시킨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코스타리카는 축구 이상으로 세계와 인류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나라이다. 코스타리카는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영세 중립국이며 스위스와는 달리 군대가 없는 비무장 영세 중립국이다. 인접국인 니카라과에 혁명운동이 일어나자 미국이 코스타리카 내에 군사기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 등 중립과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군대가 없으니 국방에 소요되는 돈을 교육 의료 복지에 쏟을 수 있어서 중남미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복지가 발달한 나라가 되었다. 그들은 이미 반세기 전에 “탱크 보다는 트랙터를! 농민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생활을!”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정의 지표로 삼았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으며 이웃 나라들의 분쟁을 조정해 주기도 하였다. 그들의 투철한 평화 애호 사상이 인정을 받아 유엔 평화대학이 수도 산호세에 설립되어 있으며 1987년 당시 아리아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생태관광과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직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 임금수준이 보장되고 있어 환경과 노동분야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바가 적지 않다.

코스타리카는 이렇게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치 사회적 환경을 가진 나라이며 행복지수 세계 1위 국가로서 삶의 질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철학과 안목을 가진 유능한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큰 나라만 좇아다녔는데 이렇게 작지만 인류에 모범이 되는 나라가 있음을 알고 코스타리카로부터 배웠으면 한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와 세계 정치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브릭스 나라들(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의 부상, 이슬람 국가(IS)의 출현 등 미국 중심의 유일패권체제가 도전받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강대국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동북아 정세는 미국과 일본을 한편으로 하고 여기에 맞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결양상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냉전구도가 재연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도 예속되지 않는 당당한 우리의 갈 길을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세력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예속되면 다른 편과는 적대적이 되니 그런 화를 자초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중립이 곧 평화의 길인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의탁하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DD)를 배치하려 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미국의 꼭두각시 행세를 자임하고 있는 꼴이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의 불구덩이에 빠져도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전초기지로서 영원히 분단국가로 남기를 바라는 것인지.....이런 자들이 정치지도자로 역할을 하고 나라와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니 참으로 통탄하고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불행이다. 서울시 인구도 안 되는 중미의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로부터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중립과 평화를 배웠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4.11.14.)